

< 부 록 1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언론보도자료

■ 주요일간중앙지

-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2)

■ 인터넷언론매체

-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이투데이, NEWS1, 조선비즈, 아주경제, 뉴스워커, 시사포커스, 뉴스웨이, EBN, 연합뉴스, 글로벌이코노믹, 데일리안, 아시아경제, 매일일보, 서울파이낸스, 쿠키뉴스, 동아닷컴, 에너지경제, MK(매일경제), 일간공업신문, 정부 언론보도 자료

[사]한일경제협회

백운규 장관,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대표단 면담

입력 : 2017-09-26 16:09

[출처] - 국민일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앞서 일본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경색된 한일 경제관계, 언제 풀리나…김동연 “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 열어 협력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7-09-26 14:28 |이해준 기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26일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일 경제협력 및 양국 기업인 간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양측은 제3국의 자원·인프라 투자 공동 진출을 확대하자는데 공감하고 문화, 청소년 교류, 한국 청년의 일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측은 또 양국 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일 경제인회의'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우호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부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나 한국진출 일본 기업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외교부-일한경제인협회, 간담회 개최

2017/09/26 13:53 송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현 외교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일한경제협회와 면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한경제협회 방한단은 26~27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관합동 회의다. 2017.9.26/뉴스1 msiron@

외교부 찾은 일한경제협회장

2017-09-26 13:53:49 송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현 외교부2차관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일한경제협회 방한단은 26~27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관합동 회의다. 2017.9.26/뉴스1

한국·일본 경제인들 "양국 장점 결합한 공존만이 살 길"

김보형 입력 2017-09-26 19:34수정 2017-09-27 05:03 지면 지면정보 2017-09-27A18면
산업 #한일경제협회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사를 통해 “한·일 경제인의 장점을 결합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은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실업 등 양국이 겪고 있는 문제도 협력을 통해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 비해 일본은 고령화로 인재 부족을 겪는 중”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인재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헬스케어산업 협력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포토] 기념촬영하는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들

기사입력 : 2017-09-26 16:42 | 수정 : 2017-09-26 16:57



백운규(왼쪽에서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백 장관,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이시게 히로유키 (왼쪽부터)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 .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 추진 … 양국 통화스와프 재개 기대

기사입력 : 2017-09-27 11:13 [이투데이 세종=양창균 기자]

김동연 부총리, 日기업인 대표단 만나 “협력방안 마련”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뒤 급랭했던 한일 간 경제 교류가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이 연내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일본 정부와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하며 내달 조기 총선을 천명하면서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이후 꼬였던 경제 교류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잇따라 경제 교류 중단 조치를 취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회도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경색 국면인 한일 경제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26일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日韓)경제협회장(전 미스비시상사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연내에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매년 양국 장관뿐만 아니라 실·국장이 대거 참여해 경제 현안과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는 최고의 경제채널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한일 간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회의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만 열렸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일정은 이르면 12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정과 별개로 일본이 내달 중의원 조기 선거를 치르는 정치적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달 22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인 집권 자민당이 승리하면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반면 출사표를 던진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맡은 신당(희망의 당)이 돌풍을 일으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한일 재무장관회의 시기는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내달 일본 중의원 조기 선거라는 변수가 발생해 한일 재무장관회의 시점이 12월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면 양국 간 통화 스와프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1년 10월에는 700억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고, 2013년 7월에는 30억 달러가 중단됐다. 급기야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까지 끊기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 스와프는 끝난 상태다.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2017/09/26 15:44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 대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seiyu@

롯데호텔서 ‘한일경제인회의’…경협증진 등 논의

기사입력 2017-09-27 11:25 |최원혁 기자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회의는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해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부품소재조달공급 상담회, 기계플랜트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온라인 마켓 상담회,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상담회 등도 병행해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경제교류회의다.

한국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사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회장은 “한일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실현을 향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원혁 기자/choigo@ 정보성광고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주) 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되었다.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하여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부품소재조달공급 상담회, 기계플랜트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온라인 마켓 상담회,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상담회 등도 병행해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경제교류회의이다.

내년이면 기념비적인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소원해진 한일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지렛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회장은, “한일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실현을 향해,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밖에 ▲한일 공통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처, ▲한국 청년실업과 일본 인재부족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관계 구축,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헬스케어산업 협력,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청소년교류 및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돈독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쌓아온 경제·문화·인재교류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서 ▲한일 하나의 경제권형성을 향한 노력의 지속 ▲공통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체제 구축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 ▲차세대 청소년교류·문화교류·올림픽 성공개최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올해로 제49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간에 개최되는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빈인사),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올림픽 소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기조연설),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희령 세아제강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신산업무역회의 보고) 등 19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前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내빈인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기조연설),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사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상담역, 키요하라 마사히로 오쿠라호텔도쿄 상담역,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이미지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코다이라 노부요리 도요타자동차 상담역 등 108명이 참석하는 등 양측에서 301명의 경제인이 참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사말하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오훈 기자 | sisafocus05@sisafocus.co.kr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등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서로 좋아하건, 갈등있건 간에 공존만이 정답"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롯데호텔서 개막 저출산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 등 공통과제 해결 모색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기사더보기 +등록 : 2017-09-27 08:37



▲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새 정부 이후 첫 대규모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 교류가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로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부품소재조달공급 상담회, 기

계플랜트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온라인 마켓 상담회,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상담회 등도 병행해서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 라는 주제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경제교류회의이다.

내년이면 기념비적인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소원해진 한일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지렛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실현을 향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밖에 △한일 공통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처 △한국 청년실업과 일본 인재부족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관계 구축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헬스케어산업 협력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청소년교류 및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돈독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쌓아온 경제·문화·인재교류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서 △한일 하나의 경제권형성을 향한 노력의 지속 △공통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체제 구축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 △차세대 청소년교류·문화교류·올림픽 성공개최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올해로 제49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간에 개최되는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이다.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빈인사),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올림픽 소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기조연설),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조

현준 효성 회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신산업무역회의 보고) 등 19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을 단장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내빈인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기조연설),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사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상담역, 키요하라 마사히로 오쿠라호텔도쿄 상담역,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코다이라 노부요리 도요타자동차 상담역 등 108명이 참석하는 등 양측에서 301명의 경제인이 참가했다.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김윤 회장 "갈등 있어도 공존만이 정답"

"새로운 분야 도전해 4차산업혁명시대 열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7-09-26 15:48 송고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

News1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은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어어 김 회장은 "한일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실현을 향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한일 공통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처, 한국 청년실업과 일본 인재부족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관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또한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헬스케어산업 협력,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청소년교류 및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돈독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쌓아온 경제·문화·인재교류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자"며 "한일 하나의 경제권형성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공통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또한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 차세대 청소년교류·문화교류·올림픽 성공개최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올해로 제49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간에 개최되는 모임으로는 최대 규모의 회의로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경제교류회의이다.

이번 회의 외에도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해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기계플랜트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온라인 마켓 상담회,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상담회 등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윤 회장을 단장으로 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신산업무역회의 보고) 등 19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前회장)을 단장으로 해 나가미 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사장 등 108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공존만이 살길…4차 산업혁명 함께 도전”

• 안상희 기자 ✉이메일 hug@chosunbiz.com 입력 : 2017.09.26 16:11



▲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 겸 삼양홀딩스 회장/조선DB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다면, 서로 좋아하든 갈등이 있던 간에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를 주제로 열린다.

한국 측 단장인 김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제조업에도 일자리에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장점을 결합하고 지식재산권과 표준화를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고립화를 탈피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공동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인공지능(AI)과 로봇이 해결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은 청년실업 문제를 안고 있고 일본은 인재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두 나라가 보완관계 측면에서 인재교류에 나서며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의약품·원격진료·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출해 협력하

자”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청소년교류 및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한국 대학생이 일본 기업 문화와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인턴십도 양국 협조 아래 응모자와 참가자 모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인재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양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미래 한일관계 50년을 구축할 젊은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자국 보호주의 무역이 대두되는 와중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아시아를 아우르는 메가 FT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는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노력 지속 ▲공통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체제 구축 ▲제3국에서의 한일협업 확대 ▲차세대 청소년·문화교류 및 올림픽 성공개최 협력도 당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두 나라의 협력 분야를 혁신적 신산업과 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함께 대응하자”며 “우수한 한국 청년의 일본 내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일본의 구인난, 한국의 구직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김 윤 단장과 백 장관 외에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안종원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19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회장 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 이시게 히로유키 JETRO 이사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사장, 오카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룹홀딩스 상담역, 키요하라 마사히로 오쿠라호텔도쿄 상담역,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코다이라 노부요리 도요타자동차 상담역 등 108명이 참석했다.



김윤 "한일 경제인들의 장점을 결합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협력으로 사회 공동문제 해결 가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차세대 청소년 교류,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 폭넓게 협력" 화답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26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해 "한일 경제인들의 장점을 결합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사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 민관합동회의다.

26~27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경제교류회의인 만큼 실효적인 경제협력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김 회장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에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양국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헬스케어 산업 협력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차세대 청소년교류·문화교류·올림픽 성공개최 등에 대해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양국이 마주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2017/09/26 15:47 송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seiyu@

NW포토]축사하는 백운규 장관…‘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 등록 : 2017-09-26 16:13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韓청년 일본취업 활성화"...한일 경제교류 확대 모색 백운규 산업장관, 한일경제인회의서 주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9-26 11:00 송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News1

경기 침체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한일 양국이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26~27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관합동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경제인 300여명이 모여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 주제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내빈 축하 및 한일 산업협력 유공자를 표창하고, 방한한 일본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교류 확대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다.

백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 양국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해 양국 협력의 지평을 혁신적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 청년 인재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 한일 협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도 주문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일본측 경제단은 우리 정부부처를 방문해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jepoo@

제49회 한일 경제인회의 오늘 개최… 한일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17-09-26 11:00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한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올해로 49회를 맞은 한일 경제인회의가 오늘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새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경제인회의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열린 후 올해 4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백운규 장관은 축사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혁신적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양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 청년 인재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하자”고 요청했다.

백 장관은 이날 한일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 양국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일본측 내빈 축사를 했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2020 도쿄하계올림픽을 소개했다.

이어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시게 히로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했다.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양국 기업과 연구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과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한일 경제협력의 격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아주경제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백운규 산자부 장관 "전기차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구체적 방안은 아직"

⌚ 윤정훈 기자 입력 : 2017-09-26 16:22 수정 : 2017-09-26 16:2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전기차 보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 하이브리드차 163만 5000대 총 20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자와 만나 "전기차의 보급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벤츠도 내연기관 차를 향후에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 않나. 친환경차에 대한 방향은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급 문제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확대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도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1만6624톤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차 10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11종, 전기차 8종, 수소전기차 2종 등 총 31가지 친환경차 제품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회 충전으로 390km 이상 달릴 수 있는 SUV '코나' 기반의 전기차를, 2021년에는 제네시스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삼성도 2022년까지 4종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쌍용차도 2019년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

[포토]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장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 49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허창수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는 26일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개최돼 온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합동회의이다. [데일리안 = 이흥석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등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허창수 "韓日은 자유무역·개방경제 좋은 본보기…보 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야"

· 문지훈 기자 입력 : 2017-09-26 17:32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GS그룹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26일 한일 양국 민간경제인

들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인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탈 세계화 확산은 한일 양국의 고민거리"라며 "자유 무역과 개방경제 수호자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좋은 본보기"라며 "경제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유경제의 비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고립주의 정책은 탈세계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우려했다.

또 허 회장은 최근 동북아 안보 위기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한일 양국에 정치·경제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제재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안보 리스크 해소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정상이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민간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협력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제에도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일 경제인들이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과 신산업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문제가 양국의 공통 과제인 만큼 함께 논의할 여지도 크다. 민간 부문의 협력 추진은 양국의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인 300여 명이 모여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로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2017.9.26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2017-09-26 15:40 송고]



서울서 한일경제인회의…"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자"

송고시간 | 2017/09/26 06:00

26~27일 이틀간 개최…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 참석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 300여명이 서울에 모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26~27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대표적인 민관합동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경제인 300여명이 모여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을 통해 양국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이 양국 대표로 참가하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한다.

이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과 이시게 히로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이 올림픽 관련 소개를 맡는다.

이밖에 재계 인사로는 한국 측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과 일본 측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대표이사, 우에다 가츠히로 오사키정공 대표이사, 코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27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대응',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 협력방안', '향후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 형태' 등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측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회의에 앞서 일본 측 단장단은 우리 정부 부처를 방문해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일경제협회 서석승 상근부회장은 "최근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주관의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과 연계해 열린다.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부품소재조달공급, 청년 인재채용,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등과 관련한 상담회가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경제협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6 06:00 송고

광고

한·일 경제인, 新 50년 향한 양국 협력 방향 논의

최종수정 2017.09.26 11:00 기사입력 2017.09.26. 11:00

백운규 장관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내빈 축하 및 한일 산업협력 유공자를 표창하고, 방한한 일본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교류 확대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가 49회째를 맞이했고, 이번 회의에는 특히 양국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한일 양국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해 ▲양국 협력의 지평을 혁신적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등으로 확대 ▲양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한국 청년 인재를 일본 취업을 활성화 ▲한일 협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백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인재교류 활성화,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일 간 산업기술 교류와 협력 증진에 기여한 양국 유공자(기업·개인)를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4차 산업혁명 협력 논의

• 이한듬 기자 승인 2017.09.26. 18:07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26~27일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 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온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인 민관합동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 하에, 양국경제인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을 통해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양국 대표로 참가하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과 이시게 히로유키 JETRO이사가장이 기조연설을, 이희범 위원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어 27일 개최되는 전체회의 1세션에서는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이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일경제협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일본 측에서는 후지야마 도모히코 국립과학진흥기구 상석펠로가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오오가와라 아키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이 ‘교류센터의 한국과의 교류역사’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협력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일본측에서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인 후지요시 유우코우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가 ‘향후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 형태’라는 주제로,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문화대학 교수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다.

회의에 앞서 일본측 단장단은 우리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경제계의 입장전달

및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 주최기관인 한일경제협회 서석송 상근부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의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한일 공통의 사회 과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담 기자 ondal84@m-i.kr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데스크승인 2017.09.20 18:11:25

박지민 기자 | pjm@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이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모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제 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한일경제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이 양국 대표로 참가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과 이시게 히로유키 JETRO이사장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직접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27일 개최되는 전체회의 1세션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일본측에서는 후지야마 도모히코 국립과학진흥기구 상석펠로, 오오가와라 아키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2세션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의 발표가 있다. 일본측에서는 후지요시 유우코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과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문화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주관인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해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부품소재조달공급 상담회, 기계플랜트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온라인 마켓 상담회,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상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기업부는 한일재단 이사장상 수상

2017년 09월 26일 (화) 15:02:51

임재영 기자 jseom@sminews.com



▲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가 김운 한일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뿌리뉴스)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가 9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 회 및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에서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로 3D프린터를 개발하여 3D프린팅 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앞장서 온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는 한일 양국의 3D프린팅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기업부문 한일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병극 대표이사는 "그동안 3D프린팅 사업을 해 오면서 국산화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오늘의 수상은 (주)캐리마 임직원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상을 주신 한일재단과 고생해 온 임직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자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병국 캐리마 대표이사(우측 네 번째), (사진=뿌리뉴스)

한편 (주)캐리마는 일본의 산업전시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며, 최근 일본 모 상사와 DLP 3D프린터 'TM-200' 제품 100대를 약 2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한 'TM-200'은 지난 6월 킨텍스에서 개최한 '인사이드 3D프린팅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캐리마의 신제품이다. 'TM-200'은 대형 디자인 목업 출력에 최적화된 산업용 DLP(광조형경화) 3D프린터로 해상도는 1,920x1,080이며 조형사이즈는 192x108x200mm(가로x세로x높이)이다.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개발한 'TM200' 3D프린터는 기존 제품 라인업에 비해 제품 외관사이즈가 줄어들었고, 대형사이즈의 출력물을 단 시간에 출력할 수 있다. 특히 'TM200'은 다양한 기능성 광중합수지를 지원하여, 캐스팅과 투명한 소재 등을 이용하여 정밀도가 높고 오차율이 낮으며, 강도가 높은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대형 크기의 디자인 목업을 빠르게 출력하는 것이 필요한 주얼리, 덴탈 등의 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수출 성공은 오랜 기간 일본 상사와 출력 및 품질 검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 국산 3D프린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이병국 대표이사는 "TM200은 대형 사이즈의 조형물을 정밀, 부드럽게 출력할 수 있고, 산업 전반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리마의 DLP 3D 프린터는 최고의 결과물을 최소한의 후처리로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캐리마의 3D 프린터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장, 한일경제인회의.... 새만금사업 홍보

윤승호 기자입력 : 2017.09.27 09:55:30 | 수정 : 2017.09.27 09:55:34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한일 간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회의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한일 협력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 청장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라고 말했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브리핑룸

이철우 청장,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새만금 홍보

이철우 청장,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새만금 홍보
양국 최고경영자들에게 새만금 투자 요청

□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26~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한일 간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번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 협력 방향”을 주제로 논의

- 주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이 청장은 주한 일본대사,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본무역진흥기구 이사장,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 등에게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투자 강점을 설명하고, 일본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의 성공적인 새만금 투자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설득력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 이 청장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라고 말했다.

□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대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개회식에서 새만금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전용 홍보관(부스)을 설치해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향후 50년 4차산업 협력 확대”… 한일경제인 300명 공동성명

정민지기자 입력 2017-09-28 03:00수정 2017-09-28 03:00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양국 대표인 김윤 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회장. 삼양홀딩스 제공

한일 경제인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고 협업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300명의 경제인이 모여 향후 50년을 향한 한일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 193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108명이 참가했다. 양국 경제인은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 협력, 청소년 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의료 문제, 초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 등 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경제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韓·日 양국경제인, 양국이 직면한 과제해결 등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

최용선 기자 cys4677@ekn.kr 2017.09.27 16:15:21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최근의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4차 산업혁명·한일공동과제 해결·청소년 육성교류 등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금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경제인은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기있는 노력의 지속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 △고령화·초미세 먼지 등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사회과제 극복 협력 △자원 개발·인프라 수출 등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청소년 교류 확대 △평창·도쿄 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문화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경제인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IoT, AI 등의 자율적 최적화를 보다 고도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생산성 향상·노동인력의 이동·저출산 고령화 대응·최첨단 의료분야·바이오기술의 발전·녹색기술의 혁신 등 폭넓은 발전을 지향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를 짚어질 전문 인재의 육성 등 폭넓게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경제인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가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문제, 초미세먼지(PM2.5)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적 측면에서의 대응 등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 사회과제의 극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제 구축에도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와 아울러 양국이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창조해 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3국의 종합적 사회개발에 대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제3국에서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300명에 이르는 양국 경제인들은 2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일정을 마무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라는 주제 하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 문제를 다룬 전체회의 1세션에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은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일경제협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일본측에서는 후지야마 도모히코 국립과학진흥기구 상석펠로가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오오가와라 아키오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이 '한일·일한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일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을 논의한 전체회의 2세션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협력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일본측에서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인 후지요시 유우코우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가 '향후 한일 양국기업의 연계·협업에 대해'라는 주제로,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문화대학 교수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27 jieunlee@yna.co.kr (끝)

한일경제인회의 폐막 "하나의 경제권 위해 끈기있게 노력하자"

27일 오후 폐막식...공동성명서 발표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7-09-27 18:32 송고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폐회식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왼쪽)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News1

한일 양국 경제인이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권 통합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고령화·취업난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경제인 300여명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경제인은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기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초미세 먼지 등 생활과 밀접한 공통의 사회과제 극복에서 협력하고 자원 개발·인프라 수출 등 제3국에서의 협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류 확대, 평창·도쿄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문화교류 확대 등의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폐막식에 앞서 양국 경제인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 라는 주제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은 최근의 경쟁적 보호무역·교역성장 부진·저성장 등의 세계 경제 기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다자주의 차원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후지야마 도모히코 국립과학진흥기구 상석펠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시장주의·민주주의·과학기술의 글로벌리즘 규범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구적·인류적 과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실현을 위해 한일이 공동협력하자"고 말했다.

올해로 제49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음 제 50회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한일경제인회의 폐막 "경제권 통합으로 사회 경제 문제 공동대응"

26-27일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폐막
경제 협력 강화하고, 사회 문제 공동 대응
평창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서도 협조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오른쪽)과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제공=한일경제협회>

한일 양국 경제인이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권 통합, 4차산업혁명에서의 협력 강화, 고령화 공동 대응에 양국이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양국경제인들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폐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 윤 단장 등 한국 경제인 193명, 사사키 미키오 단장 등 일본 경제인 108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한국의 청년 취업난, 일본의 구직난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 성명에서는 우선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지속적 노력'을 약속했다. 한·일 FTA, 한·중·일 FTA, 메가 FTA 등을 통해 단일 경제권을 이뤄 양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경제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의 도전과 협력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최첨단 의료·바이오기술 발전, 녹색기술 혁신 등의 분야에서도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양국 공통의 사회과제 극복'도 주요 협력 과제로 꼽혔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문제, 초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 자연재해 대응 등 두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미다.

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양국 경제인들은 ▲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 양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도쿄하계올림픽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일 경제인 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69년 처음 열린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대표적 한일 민·관 합동회의다.

제50회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영운 기자]

日韓、医療・環境で協力

経済人会議

【ソウル＝山田健一】日韓の企業トップらが意見交換する日韓経済人会議が27日、ソウルで2日間の日程を終えて閉幕した。「激動する国際情勢におけるさらなる日韓協力」をテーマに共同声明を採択。第4次産業革命時代を迎え、両国が人工知能(AI)など先端技術を活用して医療や環境分野で幅広く協力するよう訴えた。

2017.9.28

日刊工業新聞

雇用問題で協力合意

日韓経済人会議が閉幕

【ソウル＝須藤俊一】日、2日間の日程を終了したソウル市内で開かれた日韓経済人会議は27日、閉幕した。同日まとめた共同声明では、雇用でミスマッチが生じている雇用について初めて言及。人手不足が続く日本企業が、若年層の就職難に直面している韓



国でミスマッチが生じている雇用について初めて言及。人手不足が続く日本企業が、若年層の就職難に直面している韓記者会見する佐々木会長(27日ソウル市)

両国で対照的な状況にある雇用に関する協力も示された。完全雇用の水準にあり、人手

不足感が強まる日本に對し、韓国は大学生を中心に若年層の就職難が社会問題化している。記者会見した日韓経済協会の佐々木幹夫会長(三菱商事特別顧問)は「今、日韓関係は次の一歩を踏み出す好機」と述べ、両国の関係深化への期待感を示した。

そこで日本側は、日本企業が韓国の若年労働層を積極採用していくことで、雇用のミスマッチ解消を模索することと合意。今後両国

オンライン授業
民間参加で実証

30人規模想定

経産省、ガイドライン策定

[illegible][illegible][illegible]

10%「終わり」ではな

代友會 消費稅使途變更上

[illegible]

海底熱水鉱床は世界初

連続揚鉦に成功

[illegible][illegible]

「大阪万博」に立候補！



大阪万博の立構画申請文案
を提出する本特設人駐火大
使館（東京）

仏BIEへ申請文書提出

南海トラフ地震 情報提供

附录 11月、M7以上对象

[illegible]

が誕生した。また、百歳以上の老人は、
平均寿命を延長させることには、
動脈硬化の予防が重要である。その
ためには、

[illegible]

徐錫崇氏

相互理解の深化を



「一番困難が先
解決するべきな
らう」と思ふ。一階層
として、文部省と民
間投資とを置き、民間
の事業態度と教育の本
質とをどうにかするもの
に決意するのみ無意味だ
けで、順子の行動はそれ
だけでは済まない。」
『読者の立場から』

若者育成 未来志向 しっかり協力

[illegible]

梅江
純熙
團
XUO
はく
和(延
試置
江は
愛等

台
1984

寶
の
つ
く
多
の

山
下
つ

(일간공업신문 / 2017.9.27.)

북한문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26일부터 한국 서울시에서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었다. 양국의 경제계가 미래지향의 관점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모색한다. 한일경제는 어떤 관계를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인가?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이고, 과거 주일한국대사관상무관을 지냈던 서석송 부회장과게 물었다.

- 북한문제가 심각한데, 경제계로서는 어떤 리스크를 느끼고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북한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3국에 투자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와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재의 정세로는 위험하여 투자할 수 없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예상 가능한 세계」 이다. (현재와 같이) 내일이 불투명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 향후 바람직한 한일경제관계는?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잠재능력은 꽤 높다. 예를 들면 한국의 수출 가운데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에서 약 5%에 불과하다. 투자도 2% 정도이다. 관광객은 2016년 기준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500만 명, 이에 비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은 약 230만 명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서로 반성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다. 상호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제조업도 참가하는 기업 연합이 도시바반도체회사인 도시바메모리를 매수했는데 한국경제계의 반응은?

도시바의 동향은 한국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았다. 일본에 매우 좋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고 함께 세계시장을 개척해 가는 전략은 틀리지 않다.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에 매수 되었다고 하는 감정적인 사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누가 출자했느냐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 내년에 경제인회의 50주년을 맞이한다.

고령화에 직면한 것은 일본도 한국도 똑같다. 우리들에게는 젊은 인재 육성에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미래지향적 사고 착실하게 노력해 나가면서 다음 50년을 준비해 가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h1>보 도 자 료</h1>		
http://www.motie.go.kr				
2017년 9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26(화) 오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9.26.(화)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044-203-5690)	담 당 자	구교영 사무관(044-203-5695)	

한·일 경제인 새로운 50년을 향한 양국 협력 방향 논의

- 백운규 장관,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것”을 당부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9.26.(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내빈 축하 및 한일 산업협력 유공자를 표창하고,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교류 확대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 한일 경제인회의 개요 >

- (연 혁) 한일간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9년 양국 주요 경제단체 간 ‘한일 경제인회의’를 정례화한 이래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중
- (취지 및 목적) 양국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 모색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 기 간 : 9월 26일(화) 14:30-19:30 ~ 9월 27일(수) 09:00-17:00
 - 주 최 : (한)한일경제협회, (일)일한경제협회
 - 주 제 : “격동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한일 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함께 열어요”
-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69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가 49회째를 맞이했고, 이번 회의에는 특히 양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 백운규 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한일 양국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해 ①양국 협력의 지평을 혁신적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등으로 확대, ②양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한국 청년 인재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 ③한일 협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또한, 백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일본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인재교류 활성화,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 등에 대한 일본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 아울러, 백 장관은 한일간 산업기술 교류와 협력 증진에 기여한 양국 유공자(기업·개인)를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개회식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일본측 내빈 축사를 했고,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20 도쿄하계올림픽 소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시게 히로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이루어졌다.
- 또한, 9.26(수)에 있을 전체회의에서는 제1세션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일협력'과 제2세션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 한일 경제협력의 격상'을 주제로 양국 기업 및 연구자들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한편, 이번 한일 경제인회의 계기에는 9.26(화)~9.28(목)간 양국 기업인 4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에 따른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 (9.26)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 공동개회식

(9.27)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기계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등

(9.28)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 일본 온라인마켓 진출 설명회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 통상과 조수정 과장(044-203-5690)이나 구교영 사무관(56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또한, 김 부총리는 금년내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양측은 양국 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한일 경제인회의'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우호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특히, 김부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진출 일본 기업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 0 사사키 회장은 3년째 일한경제협회 차원에서 한국지사에서의 한국인 인턴 고용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동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 0 아울러, 아소 아소시멘트 회장(아소 일 부총리의 친동생)은 양국의 고용상황을 감안시 일본 기업이 한국 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일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4. 한편, 조 장관 대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방한 일본인이 증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일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일 기업간 협력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첨 부 : 1.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2. 사사키 일한경제협회회장 이력서
 3. 면담자 이력. 끝.

< 부 록 2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해

2017년9월26일

일본무역진흥기구
이사장 이시게 히로유키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신신무역이론'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이상향

- '신신무역이론'은 **무역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생산성 높은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경제·고용이 확대**된다고 주장

표 무역이론의 추이

이론	연구자	무역 패턴	가정	무역 발생 이유
전통적 무역이론	리카르도 (1817년)	산업 간 무역	생산 요소: 노동	비교우위: 기술(생산성) 격차
	헉서 (1919년) 오린 (1933년)	산업 간 무역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	비교우위: 상대적 요소부존비율의 차이
신무역이론	크루그먼 (1980년)	산업 내 무역	기업의 불완전성 (대표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의 불완전성(수확 확대)+소비자의 다양성 해소 산업 간 조정
신신무역이론	펠리츠 (2003년)	산업 내 무역	기업의 이질성 (기업마다 다른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 수출 가능 동일산업 내 진출·퇴출 메커니즘이 새롭게 추가

자료 출처: 경제산업성 '통상백서2017' (다나카 아유무 '신신무역이론이란 무엇인가'를 참고로 경제산업성 작성)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1

한일무역은 강자가 상대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변화

표 일본의 對한국 수출입액수 상위 10품목의 변화

< 1988년 >

< 2016년 >

순위	한국에 수출	한국에서 수입
1	반도체 등 전자부품	베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
2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어패류
3	유기화합물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4	전기회로 등의 기기	의류
5	사무용기기	음향·영상기기(부품포함)
6	금속가공기계	의류부속품
7	자동차의 부분품	석유제품
8	음향·영상기기의 부분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9	펌프 및 원심분리기	직물용 섬유계
10	과학광학기기	어패류의 조제품



순위	한국에 수출	한국에서 수입
1	반도체 등 제조장치	석유제품
2	유기화합물	반도체 등 전자부품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4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유기화합물
5	과학광학기기	은 및 백금족
6	전기회로 등 기기	자동차의 부분품
7	전기제측기기	통신기
8	석유제품	어패류
9	펌프 및 원심분리기	음향·영상기기(부품포함)
10	자동차의 부분품	제조 담배

주: 품목 구분은 '개항품' 5자리 기준,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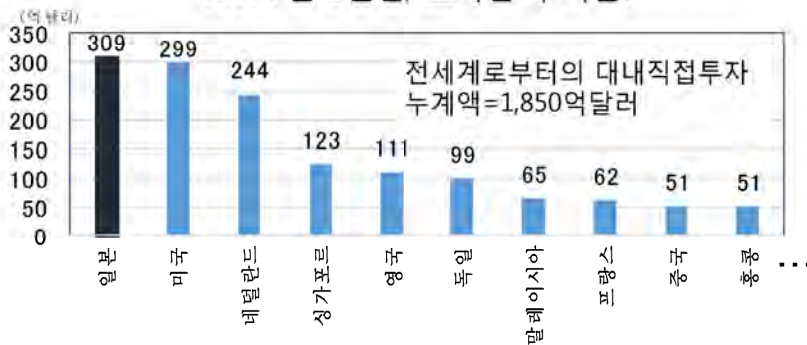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2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의 서플라이체인에 진출

- 일본은 對한국 최대 직접투자 국가
-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한 한국 대기업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한국에 판매, 생산,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는 일본기업의 움직임이 활발

그래프 한국의 국가별 대내직접투자 누계액
(2017년 6월말, 도착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3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한정적

그래프 일본의 국가별 대내직접투자 잔고
(2016년말)



자료: 재무성/일본은행 '일본 대 외국계자산 부채 잔고', 동행 '외국환율시세'를 참고하여 JETRO 작성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4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잔고는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경제의 대외 개방기장의 새로운 평가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은 '세련된 거대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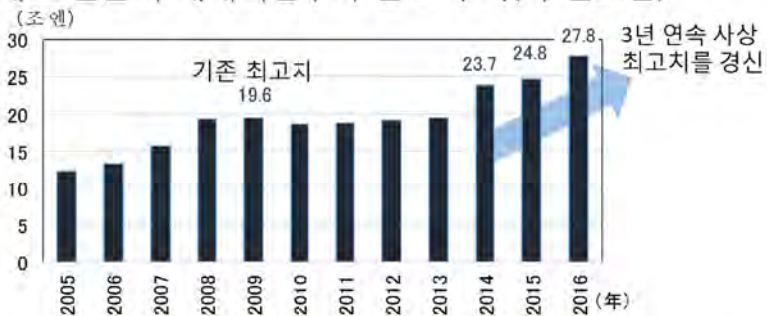
아시아·글로벌시장의 '트렌드 세터'

일본 개발 제품의 아시아·글로벌 시장 투입

일본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

전세계
대일직접투자 확대

그래프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잔고 추이(각 연도말)



자료: 재무성/일본은행 '일본 대 외국계자산 부채 잔고'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5

일본 취업 한국인의 증가 추세

- 일본 취업 후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지난 8년 간 **2.5배**로 증가하여 **2만명** 돌파. * 일본 취업 한국인의 총계는 **2.3배**로 증가하여 **약 5만명**

그래프 일본 취업 한국인의 추이



주: 각 연도 10월말 기준. '기타 체류자격'은 일본인 배우자, 유학, 워킹 홀리데이, 기술실습 등.
자료: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의 신청 상황에 관하여'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6

제3국內 한일기업의 연계가 활성화

- 한일 유력기업이 제3국에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상호보완**하는 사례 증가

그래프 제3국 한일 협업사례 건수
(자원개발·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자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7

양질의 RCEP, 한중일FTA 체결을 위해 한일협력 강화해야

- RCEP, 한중일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5년 가까이 경과
- **선진국 동료**이자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하여 양질의 FTA 조기 체결 위해 노력해야

표 RCEP·한중일FTA 협상 개요

RCEP(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한중일FTA	
ASEAN10개국+FTA파트너 6개국		한국, 일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구의 50%, GDP의 30%를 차지하는 광역경제권 실현 • 최종적으로 FTAAP(아태자유무역권) 실현에 기여 • 관세철폐·인하뿐 아니라 루트 통일, 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 역내 서플라이체인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GDP·무역의 20%를 차지하는 3개국의 무역·투자 촉진 • 최종적으로 FTAAP(아태자유무역권) 실현에 기여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룰메이킹에 공헌 	
2011년8월	일중 공동으로 ASEAN+3과 ASEAN+6에 관한 워킹그룹 설치를 ASEAN에 제안	2003~09년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2년11월	ASEAN각국·FTA파트너 각국 정상에 RCEP 협상 입안을 선언	2011년12월	공동연구 종료
2013년3월~현재	각료회의 9회, 협상회의 19회 개최	2012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FTA의 연내 협상개시 합의
		2012년11월	한중일FTA 협상개시 선언
		2013년1월~현재	협상회의 12회 개최

자료: 경제산업성 '동상백서2017', 외무성 웹사이트를 근거로 작성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8

JETRO서울사무소 50주년

日本무역진흥회
韓國에사무소設置
JETRO서울사무소는49
번째의 해외사무소로 될것인
데 田中君은3월중순 서울
로향발하리라고한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
에서는 한국에 JETRO
사무소설치를 정식으로
결정하고 초대주재원으로大
阪府부자료과장 田中君씨를
기용하였다.

JETRO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신문기사(매경신문 기사)
출처: NAVER 뉴스라이브러리

技術研修生交換검토
1차 코트라·제트로協議會

개소한 해(1967년)에 개최된 제1회 JK회의 관련 신문기사(매경신문 기사)
출처: NAVER 뉴스라이브러리



설치 당시 JETRO서울사무소가 위치했던 대한일보 빌딩(중앙)
출처: 서울 사진 아카이브



현재 JETRO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영풍빌딩

9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JETRO서울사무소 50주년

대일수출지원

對日 수출 도와드립니다.

생확거점 市場 동향 정보 제공
東京 特産品 市場에 공급

JETRO의 대일 수출 지원 관련 신문기사(태경신문)
 출처: NAVER 뉴스라이브러리

여수EXPO



일본관



JAPAN DAY

일본 농림수산물 프로모션



'KOREA BUILD 2017' 일본관



'SEOUL FOOD 2017' 일본관

10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일본의 실천 사례 (JETRO 중소기업 지원)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11

KOTRA와 모범사례 공유

- KOTRA와 JETRO는 1967년 이후 정기협의회를 실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해옴.
- 2016년 11월, 6년만에 제40회 정기협의회를 개최. 양 기관의 경영방침 및 무역·투자 분야 주요사업 소개, 의견교환, 향후 협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사진 KOTRA·JETRO 정기협의회 6년만에 개최
(2016년 11월 8일, 도쿄, JETRO본부)

JETRO 이시게 이사장과 KOTRA 김재홍 사장



회의 현장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12

분데스리가: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FC아우크스부르크
한일 양국 선수들의 뜨거운 우정!!

https://www.instagram.com/p/BH2vA7gAO5Q/?taken-by=takashi_usami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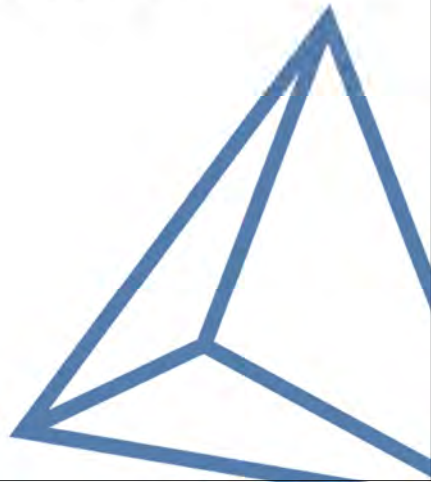
Copyright (C) 2017 JETRO. All rights reserved.

13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한일의 협력

정 인 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전공)
inkyoc@gmail.com



목차

- I.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특성
- II.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 III.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일의 협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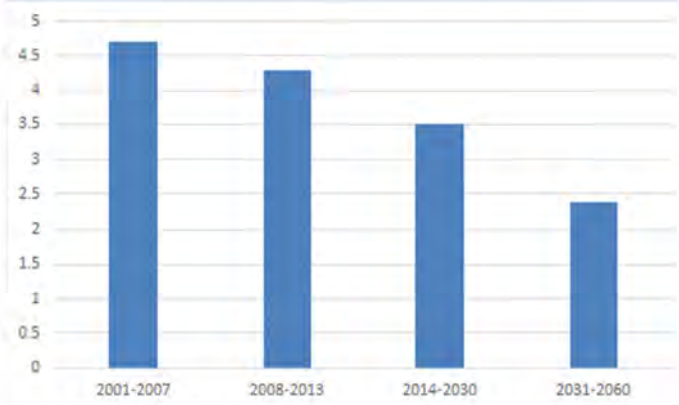
목차

- I.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특성
- II.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 III.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일의 협력사항

3

글로벌 경제의 New Normal: 장기 저성장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추이(전망, %)



자료: WTO(2016) "WTO 세계무역보고서"

인하대학교 대학원 FIA전공 www.FIASchool.com

4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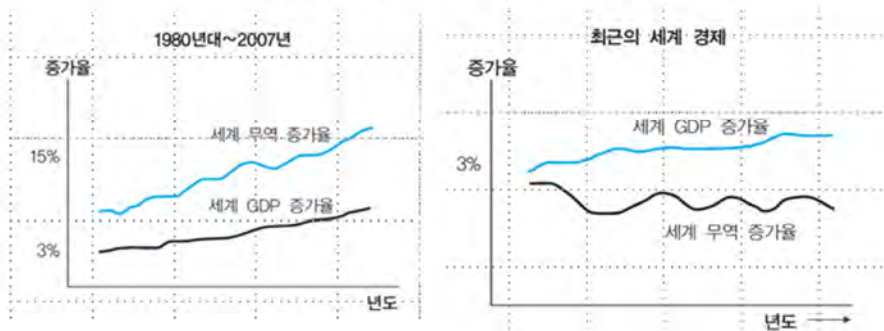
• 세계경제 기조 변경

- 자유화 → 보호무역
- 교역 확대 → 교역 성장 부진
- 고성장 → 저성장
- 선진국의 대중국 관계: 협력 → 중국 견제
- 보호무역주의 확산: 견제 → 방임, 경쟁적 보호주의

5

세계무역과 경제성장 상호시너지: 무역탄력성 약화

세계 무역과 GDP 추이 개념도(%)



자료: 정인교(2016) "최근의 글로벌 동상환경 평가와 시사점", 을국출판사

신보호무역주의 추이

거래품목 대비 무역장벽 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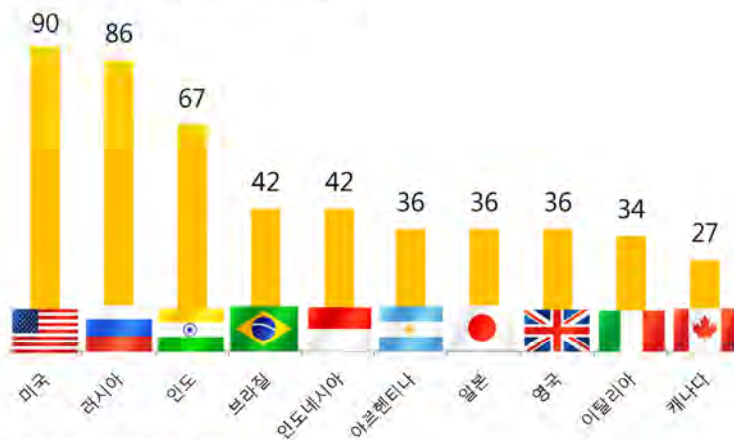
자료: WallStreet Journal (2016.9.6) "Trade Protectionism Risks Deeper Global-Growth Funk, IMF Warns"

민화대학교 대학원 FTA전공 www.FTAschool.com

7

신보호무역주의 추이

무역제한조치 많이 발동한 10개국 (단위: 건)



자료: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 2015년 기준

민화대학교 대학원 FTA전공 www.FTAschool.com

8

글로벌 철강 Overcapacity와 제소 건수



자료: OECD 철강위원회('16.6), worldsteel('16.4), 재인용 국회철강포럼(2016)

주: 제소국 기준

연하대학교 대학원 FTA전문 www.FTAschool.com

목차

- I.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경쟁
- II.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 III.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일의 협력사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 신고립주의(신먼로주의)
- 통상협정 무용론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기
 - NAFTA, 한미 FTA 재협상
-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에 대한 기업 투자 강요
 - 리쇼어링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군사안보분야
 - 대외통상분야 : 보호무역

11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핵심 Advisor



외교안보분야



스티븐 케빈 배넌(1953)

- 미국의 은행가, 기업인, 정치 전략가
- 극우 성향의 온라인 언론 브라이트바트 뉴스 설립자('대안 우익(alt-right)' 운동의 주축)
- 백악관 수석 전략가 및 수석 고문에서 전격 경질(8월 18일)

통상정책분야



피터 나바로(1949)

- 미국 UC Irvine 경제학 교수
- 대(對)중국 강경파
-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
- 2012년 '중국에 의한 죽음'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국장급으로 격하

인하대 FTAc대학원 www.FTAschool.com

12

합리론자들의 강경파 배년 축출(8월 18일)



비선라인으로 역할



● 백악관 비서실장

존 F. 켈리 (John F. Kelly) 인국공무원, 전 해군

출생 1950년 5월 11일, 미국

소속 미국 국토안보부(장관)

경력 2017.01 ~ 제5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2012.11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

2012.11~2015.01 미국 해병대 대장

2012.01 미국 해병대 중장



● 게리 콘(Gary Cohn, 1960)

●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허버트 맥마스터 중장



● 국방장관

● James Mattis 장군

13

미국 지역별 무역 영향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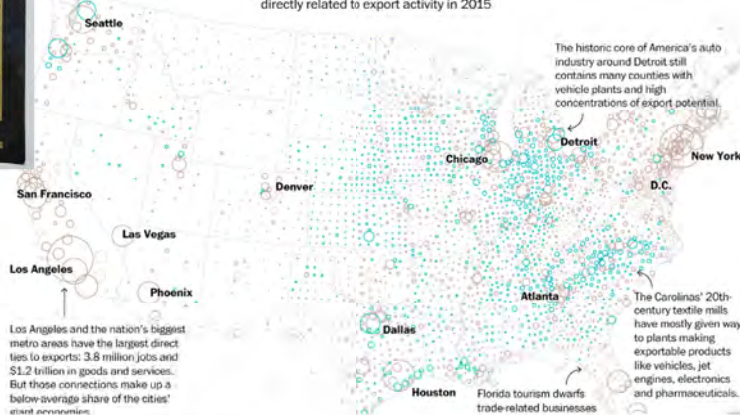
How dependent counties are on trade: Exports as a proportion of the local economy

Less than 8%

8-15%

16-50%

300 to more than 500,000 jobs directly related to export activity in 2015



자료: Washington Post(2017.2.7)

14

NAFTA 개정 협상

- NAFTA 개정 협상 전망

NAFTA 개정 협상 전망(PIIE)

-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영향
 - 미, 내년 중간선거
 - 트럼프 대통령, 통상분야 단기 실적 모색
 - 중국, 일본, EU, 멕시코, 한국
 - 멕시코: 미 의회 반발

1. 시나리오 1
 - 캐나다-멕시코 양보
2. 시나리오 2
 - 미국 양보
3. 시나리오 3
 - 협상 파국, 협정 폐지
4. 시나리오 4
 - 협상 장기화

15

향후 미 통상정책

- FTA 우호적인 공화당
 - 트럼프 대통령,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 민주당
 - 정체성
 - 새로운 정강 검토
 - 초보호무역주의
- 향후 상당기간 보호무역주의 지속 가능성

16

목차

- I.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특성
- II.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 III.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일의 협력사항

17

향후 몇년간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지속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 존재
- 미중간 통상마찰, 한일 포함 제3국에게 영향
- NAFTA 돌발상황 발생시 무역보복 등 경쟁적 보호주의로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지역 및 양자 협력 필요
 - 한일은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국

18

다자주의 차원의 대응

- **WTO 분쟁조정기구(DSB)의 확충**
 - 제소부터 WTO Appellate Body의 보고서 채택되기까지 통상 2년~3년. 이행 보고서 제출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
 - 현재와 같은 인원과 구조로는 실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만연하는 현상을 시정하는 데 한계
 - 캐나다, DSB의 판단 지연 문제 제기
 - 트럼프 행정부의 WTO DSU bypass
- **보호무역주의 시정을 위한 WTO/OECD 작업반 신설**
 - 보호무역조치의 당위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

19

지역 경제협력

- **다자협상 진전을 위한 동북아 협력 강화**
 - 무역자유화 및 보호무역주의 차단 위한 국제적 협력
 - WTO, OECD, APEC 등에서의 자유화 협상 공동대응
 - TISA 협상
 - EGA(환경상품협정)
- **공급과잉 산업 공동 구조조정**
 -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집중
 - 한중일 공동으로 공급과잉 산업 발굴

20

한일 경제협력

- **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 검토**
 - 일본: TPP11 발전 돌파구
 - 한국: 과거보다 유리한 가입 환경
- **한일 양자 협력사업 평가 및 업그레이드**
 - 양자간 경제협력의 질적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협력사업
- **양국 경제통상현안 해소**
- **한일 FTA 검토**
 - 한중일 FTA 협상 부진
 - 현재의 글로벌 통상환경 고려한 양자간 FTA 검토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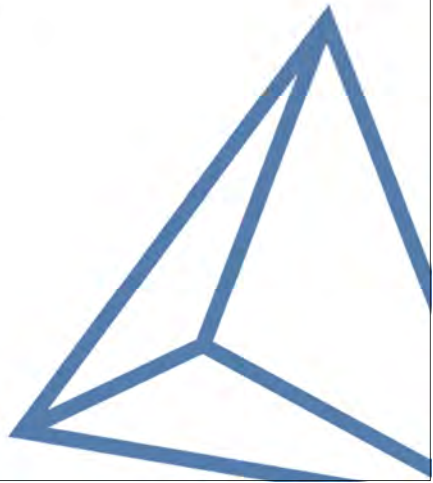
한일 FTA

- **추진 여건 평가: 과거 보다 개선**
 - 한일 양국 모두 FTA 경험 축적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 필요
 - WTO 다자통상협상 부진
 - 4차산업 대두 등 산업구조 개편
 - 정치사회적 변수는 여전히 장애요인
 - 문재인 대통령 "한·일 과거사 문제 당분간 거론 않기로"(9월8일)
- **제안 사항**
 - 한일경제인회의 등 양국 경제단체의 공동성명
 - "한일 FTA 추진전략" 보고서 작성 및 양국 정부 제출
 - 양국 언론인 대상 세미나 및 홍보 활동

22

감사합니다.

Q & A



한일경제인회의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 「리먼위기 후 세계」의 의미
- 세계화의 요동=가치 변화를 생각=
- 인류적 과제와 세계화 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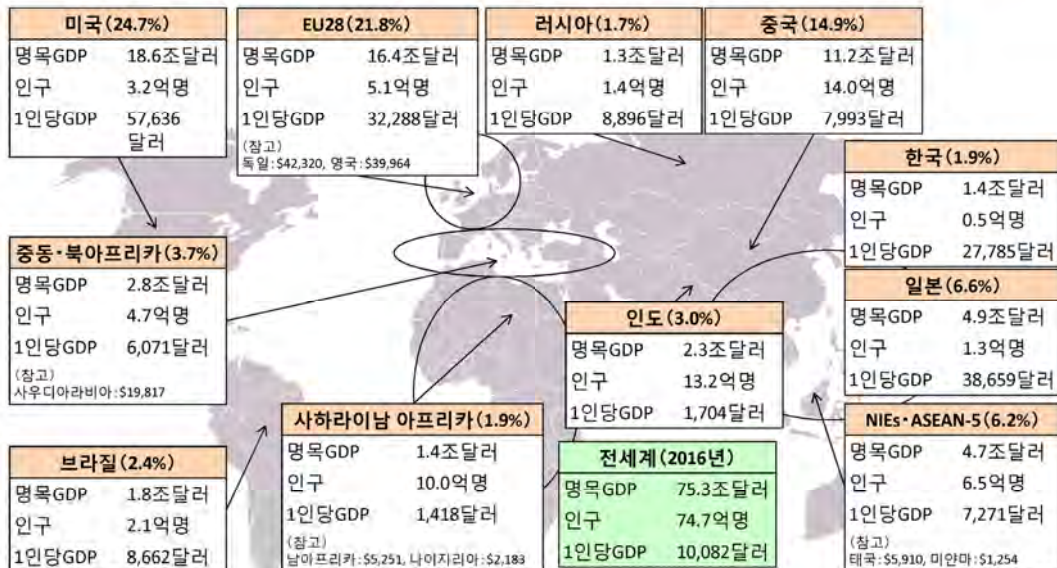
2017년 9월 27일

국가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IST)
연구개발전략센터 (CRDS) 선임연구원

후지야마 토모히코 (藤山 知彦)

세계경제 현황 (2016년)

세계 GDP에서 미국,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4.7%, 14.9%. 한국, 일본은 합계 8.5%



출처) 국가·지역명 옆의 숫자는 세계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리먼쇼크 후의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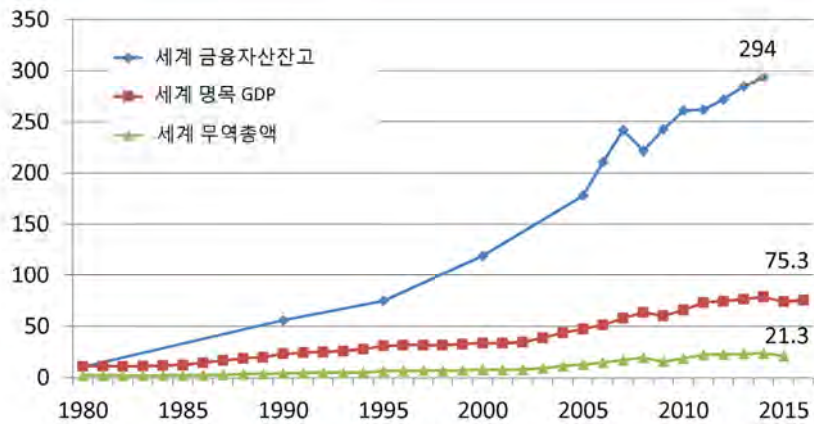
- ① 선진국 재정적자에 의한 성장전략의 견인실패
- ② 금융규제 개혁은 어중간
- ③ 금융자산 GDP 대비 3 배 초과
- ④ 선진국의 저성장 (신흥국 높음 → 저성장) → 세계경제의 저성장

출처)

2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증대

(조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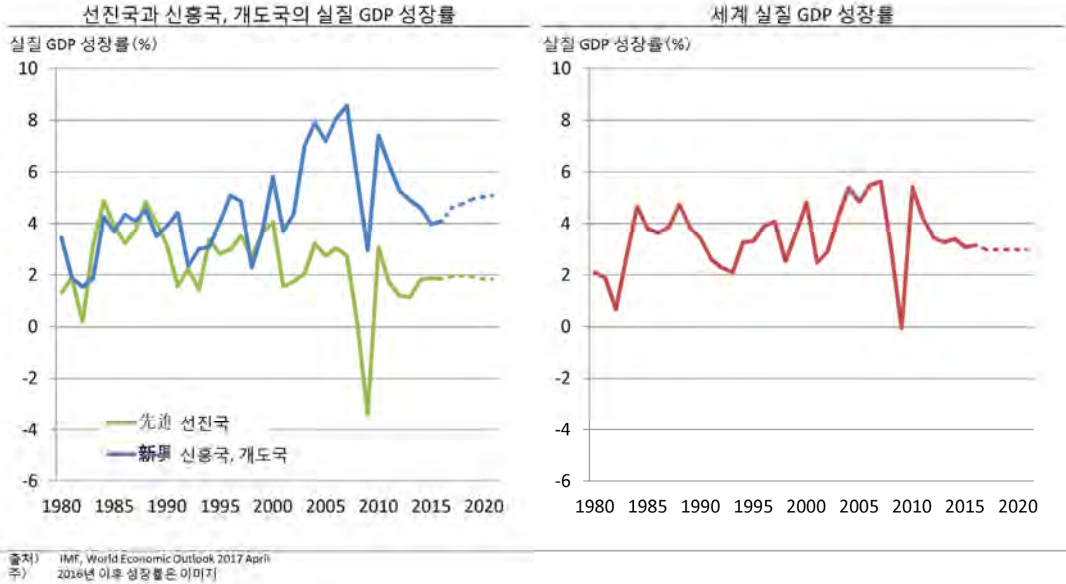
(세계 명목GDP대비, 배)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세계 금융자산잔고	1.0	2.4	2.4	3.5	3.7	4.0	3.7
세계 무역총액	0.2	0.2	0.2	0.2	0.3	0.3	0.3

출처) IMF, World Bank, McKinsey

3

세계경제는 당분간 3% 성장 지속

향후 몇 년 동안 선진국 경제는 0-2%, 신흥국·개도국 경제도 둔화가 예상되며 비교적 완만하게 성장하여 세계경제는 당분간 3% 정도의 성장이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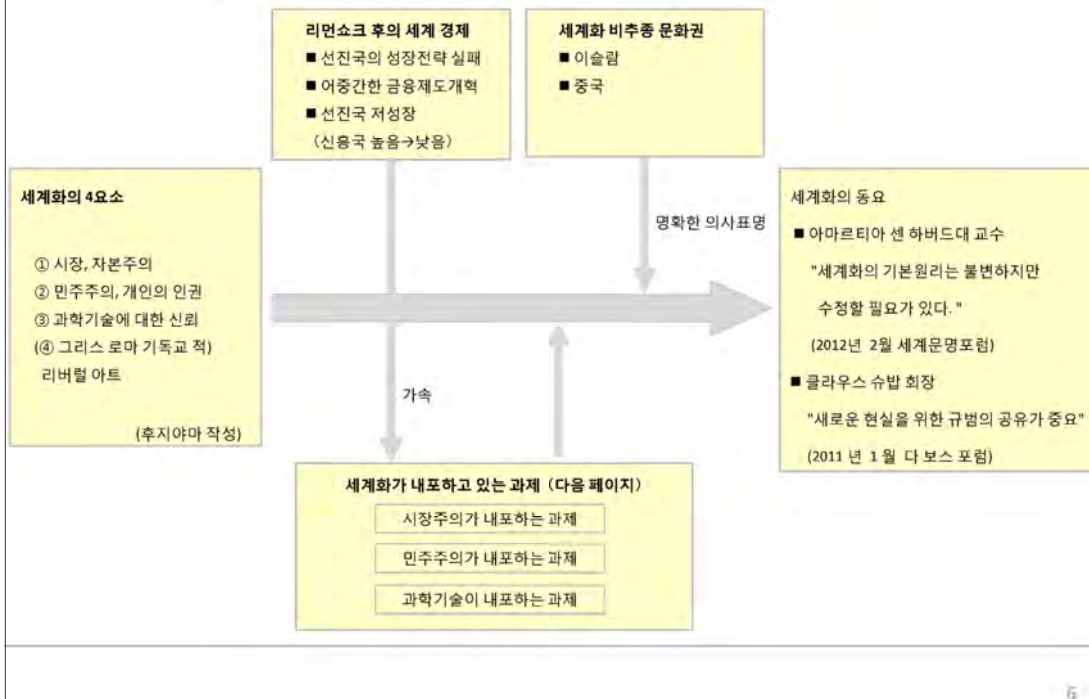
4

세계경제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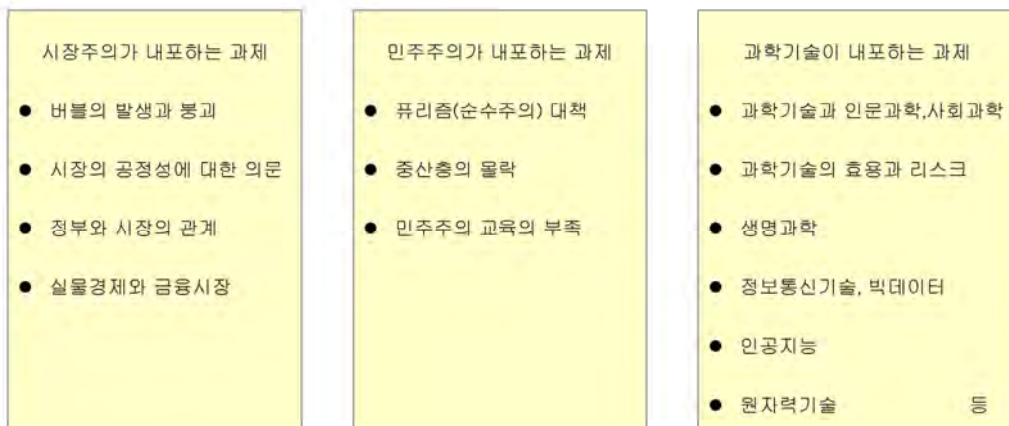
세계경제 대비 일본·미국·유럽·한국의 비율은 감소 경향



세계화의 요동



세계화의 과제



세계화의 요동 스테이지의 변화

스테이지0

세계화가 내포하는 과제

I

2000 —

II

BRICS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상회하여 세계화 신흥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2008

리만쇼크

중국·이슬람 세계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분명해짐

II'

격차확대가 사회문제가 됨

2016

BREXIT

트럼프 대통령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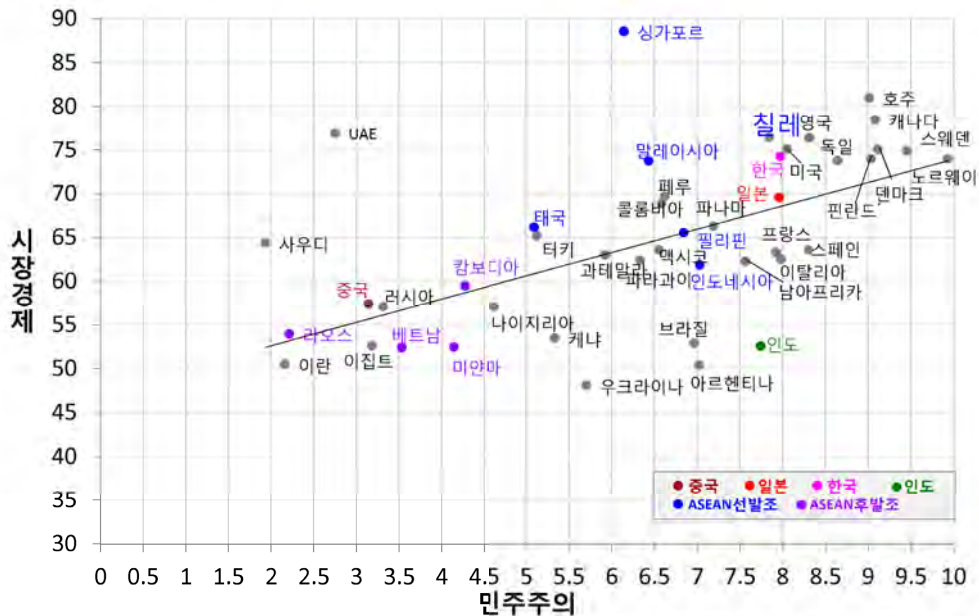
III

유럽(EU)의 통합성이 하락하고 이민문제에 동요

미국에서 전통적 세계화 정책(자유무역주의, 환경보호주의)의 변경이 시도됨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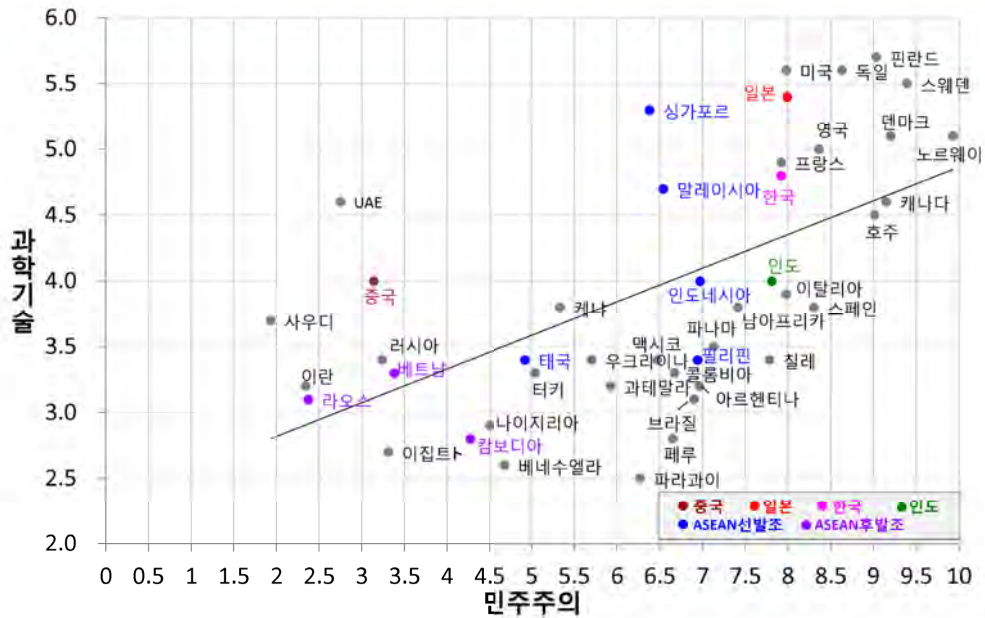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관계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5"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nes & Company, Inc.,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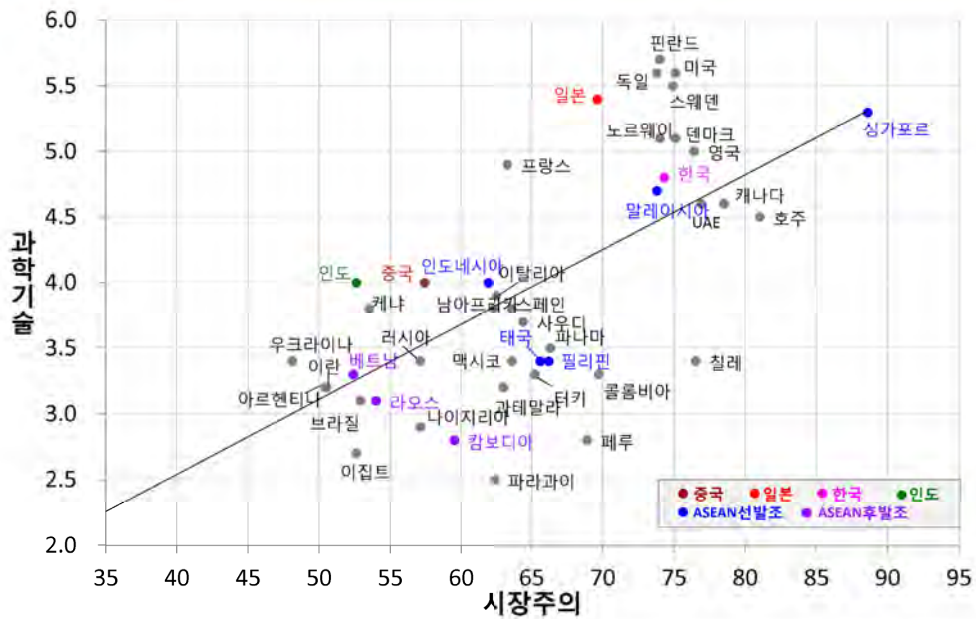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관계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5"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nes & Company, Inc.,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10

시장주의와 과학기술의 관계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5"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nes & Company, Inc.,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11

격차와 인간개발에 대해서

세계화의
사상성/문명성/지표화
(기회균등)

은 일단 접어두고

격차·인간개발/개인성/원수치
(결과균등)

에 착안해 보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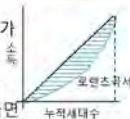
세계화는 “하나의 확립된 사상”이지만 그 밖에 “격차” “인간개발”의 사고방식도 중요

조셉 스티글리츠

- 현대사회에 있어서 격차는 때때로 (일부 국가) '기회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미국의 격차도 심각.
- 이것은 인력 활용,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정체시킨다.
- 격차가 벌어지면, ① 중산층의 소비지출 감소 ② 중산층 자체의 공동화 ③ (부유층은 조세포탈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④ 경기의 파도가 빈번히 발생
- 격차의 확대는 "시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것"이다.
- 피케티의 자본수익률> 경제성장률, "방치하면 격차는 더욱 확대"의 입장을 지지

지니계수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가 고안해낸 것.
소득이 낮은 순서로 누적세대수가 증가할 때 마다 소득을 축적해 나가면 완전평등에서는 대각선이 된다 (지니계수 0)
실제 데이터에 입각한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하고, 그 곡선과 대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지니 계수. 격차의 최고가 1이 된다.



팔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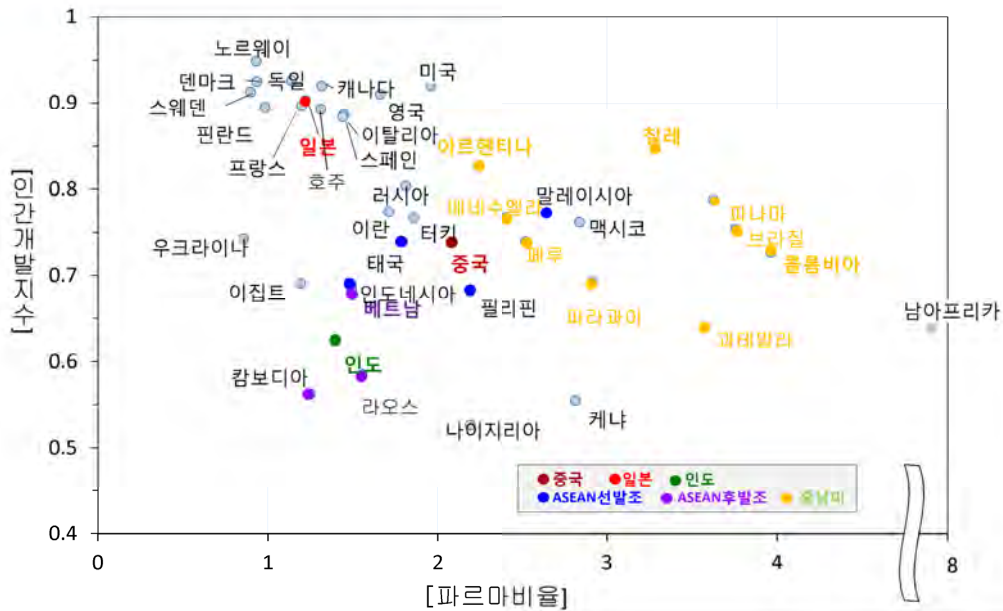
케임브리지 대학의 가브리엘 팔마가 제창.
상위 10%의 소득 합계÷하위 40%의 소득 합계
지니 계수보다 국제 비교의 압축성이 매우 높다. 숫자가 클수록 격차 사회.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을 중시한 국가별 퍼포먼스를 평가
출생시 평균여명 · 평균취학연수 · 예측취학연수 ·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파르마비율과 인간개발지수의 관계



14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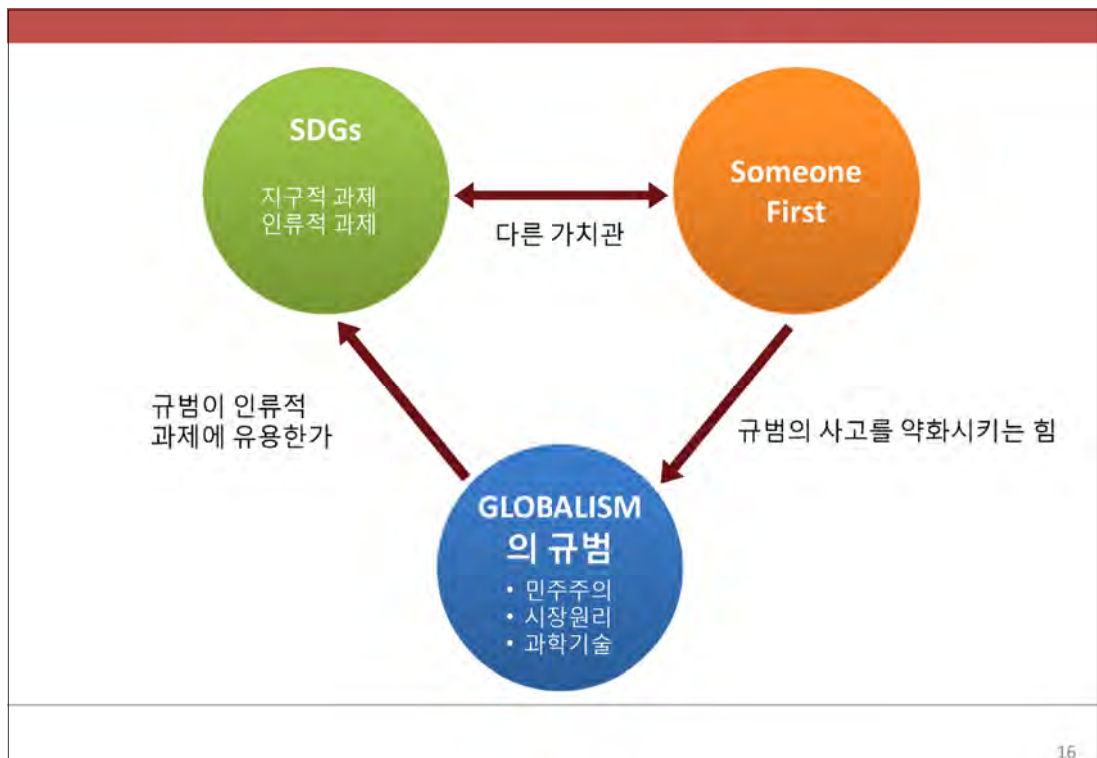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세계를 바꾸기 위한 17가지 목표



출처: 국제연합본부센터

1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일경제협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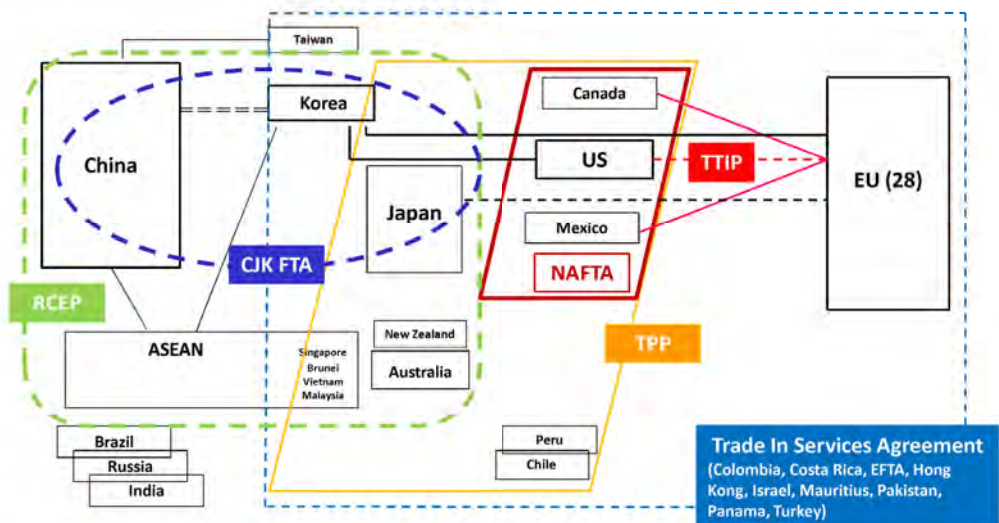
안덕근 교수



GSI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ega FTA 현황과 FTA



GSI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미, 대중 통상마찰 현황

- 미국: 무역구제조치 남발 문제
 - ❖ “adverse fact available”
 -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 상무부 자체직권조사 기능 강화
- 중국: “Thaad” (Anti-missile system) 통상마찰
 - ❖ 롯데마트 폐점조치
 - ❖ 한국 관광상품 판매금지
 - ❖ 현대, 기아차 불매운동
 - ❖ 대북 제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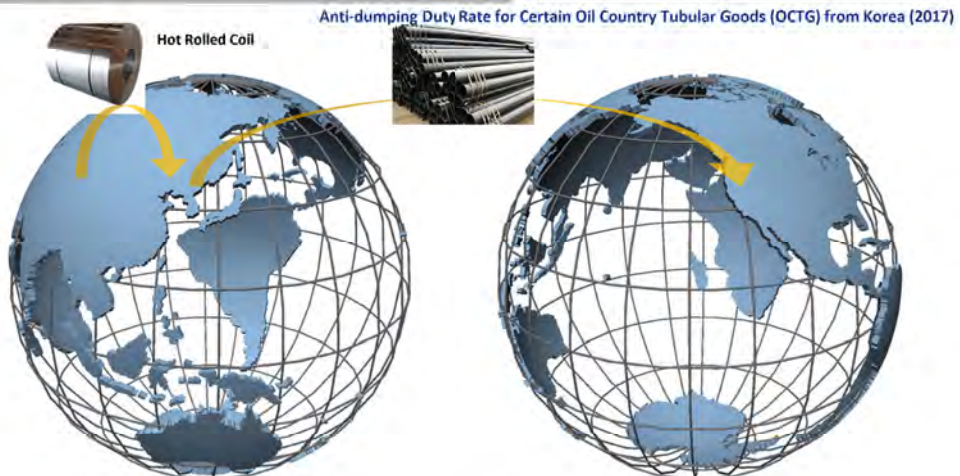
GSIS

국립국제문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3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porter	AD rate(%)	Duty Effect
NEXTEEL Co., Ltd	24.92	Approx. 70 million\$
SeAH Steel Corporation	2.76	
Non-examined companies	13.84	



G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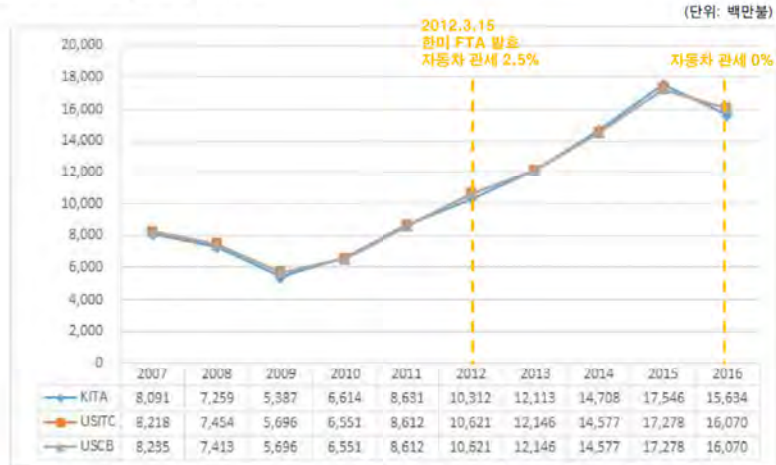
국립국제문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4

한미간 자동차 교역 현황

-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 (R&D센터)
- 한국의 서비스 수입 증가
 - ❖ 사업서비스
 - ❖ 금융서비스

□ 한국의 대미 완성차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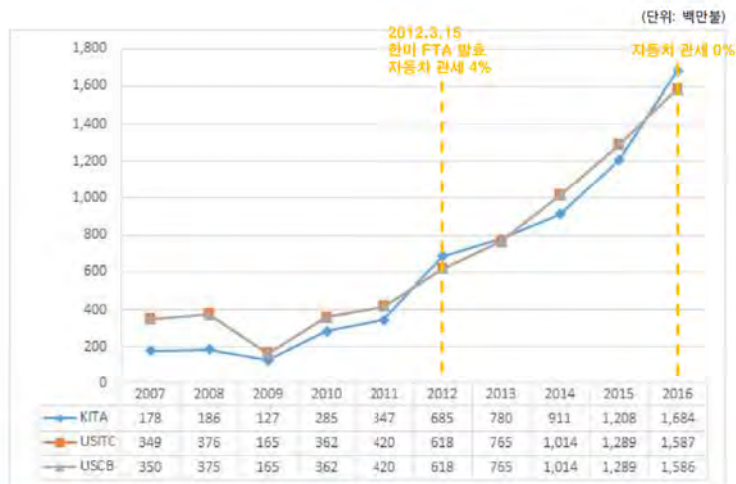


GSIS

GRAND STRATEGY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외무부 국제전략연구소

5

□ 미국의 대한국 완성차 수출 추이



GSIS

GRAND STRATEGY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외무부 국제전략연구소

6

TPP/KORUS 협상에서의 쟁점

- TPP versus NAFTA 2.0
- NAFTA 2.0 versus KORUS 2.0
 - ❖ 환율조작 규정
 - ❖ NAFTA 2.0 고수 가능성
- 산업별 쟁점
 - ❖ 쌀시장 개방문제
 - 513% 관세 통보
 -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 Lonestar ISD 분쟁 판결
 - ❖ 국영기업 규정
 - 친노조 정권의 정치적 한계
 - ❖ 수산보조금



GSIS

GRAND STRATEGIC STUDIES INSTITUTE

7

한일 경제협력 과제

- TPP versus US-Japan FTA
 - ❖ KORUS 2.0 체결시 미일 FTA 재검토 가능성
 - ❖ 한일 FTA 재검토 가능성
- 한일 서비스협상
 - ❖ 한일FTA (2003.12.22 negotiation began, 2004.11.1 negotiation suspended)
 - ❖ 양국 정부 모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 ❖ Movement of natural persons, e-commerce, financial services 포함
 - ❖ 투자 조항 포함
 - ❖ CJK FTA 토대
- 정치적 신뢰 구축 필요
 - ❖ 산업계 협력관계 강화 필요



GSIS

GRAND STRATEGIC STUDIES INSTITUTE

8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일한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7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류센터 (JCIE)
이사장 오오가와라 아키오

목 차

- 한일 양국의 지적교류의 역사
- 한일/일한 포럼 탄생의 연원
- 한일/일한 포럼의 설립
- 한일/일한 포럼의 개요
- 한일/일한 포럼의 의의와 성과
- 한일/일한 포럼의 새로운 활동
- 앞으로의 한일/일한 포럼



한일 양국의 지적교류의 역사

JCIB



2

한일/일한 포럼 탄생의 연원 (1)

JCIB

한일지적교류회의 (1977년~1992년)

- 일본국제교류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가 협력하여 민간차원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한일간의 지적대화를 위한 플랫폼
- 당시 민간차원의 교류는 기업간의 교류에만 한정되어 있었음
- ⇒ 이에 한일지적교류회에서는 양국간의 공동연구·대화를 중시하였음
- 대학교수, 연구자 등 한일 양국의 학식자 각각 10명정도가 참가하여 영어로 한일 관계와 한일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토론
- 1977년 7월에 일본/하코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 1992년 6월까지 한일양국을 오가며 10번의 회의를 개최
-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한 플랫폼을 모색하려 하였음

3

한일 21세기 위원회 (1988년~1991년)

- 1988년 2월에 노태우 대통령과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간의 정상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치되었음
- 한일 양국 정부에 위원회 보고서를 정책 제언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목적

주된 활동

- 제1차 회의를 1988년 1월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1990년 12월까지 한일 양국을 오가며 총 5번의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1991년 1월에 위원회의 성과를 공표
 - 「한일 21세기 위원회 최종 보고서」
 - 「한일 21세기 위원회 참고 논문집-어른 조사 · 미디어 조사 · 문헌조사」
 - 「한일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지방 차원의 한일 교류 조사 보고서」

한일 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

- 1997년 7월에 한일 양국 정부의 위탁을 통해 발족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 양국 위원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역사공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정책제언의 형태로 정리하고 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위원회로서 역사공동연구를 직접 다루지 않으며 양국간의 역사인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

주된 활동

- 한일 역사포럼의 개최(1998년 9월, 1999년 9월)
- 역사연구, 한일 관계사 연구/공동연구 등 현황 파악과 요람 발간
- 민간/시민 차원의 풀뿌리 역사연구/교류 현황 조사
- 근현대 일한 관계사 자료의 가이드 북과 소장 사료 목록과 소재지 목록의 작성
- 상호 역사에 관한 저작물의 번역 출판 상황 조사

한일/일한 포럼의 설립

설립 배경

- 냉전 종결 후, 한일 양국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 미래지향적 대화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었음
- 포럼의 필요성을 인식한 양국 정부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설립 움직임
일본측 : 오와다 히사시 외무성 외무사무차관(일본측 초대 의장)
고 야마모토 다다시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한국측 : 오재희 前주일대사, 한승주 당시 외무부 장관
- 1993년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김영삼 대통령,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에서 「미래지향적 민간 대화」를 위한 장으로서 한일/일한 포럼 설치를 합의함

6

제1차 한일/일한 포럼

- 1993년 12월에 서울에서 제1차 한일/일한 포럼을 개최
- 일본측 의장으로 오와다 히사시 당시 외무사무차관이, 한국측 의장으로 배재식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취임



7

한일/일한 포럼 개요

주최·사무국

- 포럼 설립 당시부터, 일본측 사무국은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한국측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맡아 옴.
- 일본측은 당초 외무성의 위탁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각년도 주최/사무국이 결정됨

예산

- 한일 양국의 정부예산으로 실시

회의 형식

- 현역 외교관과 정부관계자는 참가하지 않음
- 국회의원, 경제인, 학자, 저널리스트 등 양국에서 각각 25명 정도가 참가
- 비공개, 채팅하우스 풀을 바탕으로 3일에 걸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장려
- 외교/안전보장, 양국의 국내 정치, 경제/통상 정책, 한일 시민교류 등의 분야에 대해 토론
-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개최해 옴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를 건의 (1995년)

- 1995년 9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일한 포럼에서 채택한 제주성명에서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관해 건의
- 한일 양국의 축구협회가 단독 개최를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일한포럼의 양국 관계자가 본 건의를 바탕으로 공동개최 실현을 위해 동분 서주하였음
- 1996년 5월 30일에 국제축구연맹(FIFA)이 한일 공동개최를 결정
- 2002년 FIFA월드컵대회를 한일 양국 각지에서 개최



한일/일한 포럼의 제주 성명서

「2002년 월드컵은 21세기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의 하나이다. 그런 점 때문에 개최 유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 점이 양국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게 될 것이고 감정적 응어리를 남기게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되고 있다. 제3차 한일 포럼의 많은 참가자들이 월드컵을 한일 양국의 공동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양국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것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 주최를 실현하기에는 실시상의 제반 문제 등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자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10

한일공동선언 (1998년)

1998년 10월에 일본국 국민으로서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한일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체결. 선언 안에 한일/일한 포럼이 계속적인 지적교류의 플랫폼으로 명기되었음



11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중략) 양국 정상은 한일포럼 등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간의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일/일한 주니어 포럼의 설치

- 2015년부터 한일/일한포럼의 사이드 이벤트로서 개최
- 한일 양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각각 10명씩 참가
- 「한일/일한 교류의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테마로 토론
- 주니어 포럼 참가자에 의한 한일/일한 포럼 방청과 발제 기회를 마련
- 한일/일한 포럼 참가자와 학생 간의 「세대간 교류」의 촉진



한일/일한포럼상 신설

- 오랜 동안 한일교류촉진에 공헌해 온 민간인을 수상자로 선정
- 2016년 8월에 개최된 제24차 한일/일한포럼에서 신설
제1회 수상자 : 고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제2회 수상자 :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14

제25차 한일/일한 포럼

- 2017년 8월 28일~30일에 「제25차 한일/일한 포럼」 개최
- 다음을 양국의 의장 성명으로 채택
 1.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다 밀접한 협력관계의 구축
 2. 역사문제를 제어하며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
 3. 한일FTA체결과 한국의 TPP 가입 등 통상경제관계의 향상
 4. 젊은 세대간의 상호의식의 향상과 민간교류의 확대
 5.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을 위한 상호협력

15

한일/일한 포럼이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역할

- 「한일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과거를 성실하게 직시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한층 더 기여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2018년은 한일공동선언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기임
- 한일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인 한일 지적교류의 플랫폼으로서 포럼을 안정적으로 개최해나가야 할 것임
- 양국의 체계를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이어주는 촉매제로서 포럼의 존재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다음 세대가 한일 우호의 횃불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주니어 포럼을 통해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일포럼상을 통해 한일관계에 기여한 공로자들의 공로를 표창하여 시민/폴뿌리 차원의 교류 촉진과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 협력방안

2017. 9. 27

李 佑 光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REA-JAPAN COOPERATION FOUNDATION
FOR INDUSTRY AND TECHNOLOGY

1. 축소하는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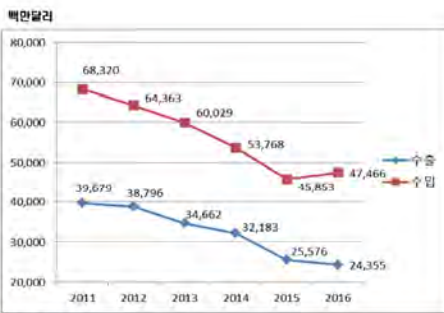
대일무역은 2011년 최고치인 1,07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
→ 2016년 718억 달러로 34% 축소

- 대일수출은 2011년 396억 달러에서 2016년 243억 달러로 5년간 39% 감소
- 대일수입은 2011년 683억 달러에서 2016년 474억 달러로 5년간 31% 감소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는 2012년 최고치인 39억 달러 비해, 2016년 10억 달러로
¼수준으로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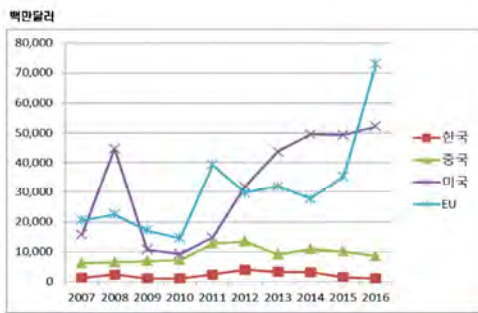
-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한국·중국 투자는 감소, 미국·EU투자는 증가 경향

한국의 대일무역 추이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JETRO

2.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변화

대일무역은 왜 줄었나?

- 양국의 무역규모 축소 : 한국 → 2011년에 비해 전체 수출이 11% 감소, 수입은 23% 감소
일본 → 수출은 22% 감소, 수입은 29% 감소
- 양국 모두 해외진출(일본기업 한국진출 등) 증가, 한국은 부품소재 국산화 진전, 수입선 다변화 등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는 왜 줄었나?

- 현지 소비를 겨냥한 M&A(미국-EU 등), 금융관련 투자 증가, 직접투자는 인도-베트남 등을 주목
-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 저하(2012년 12위 → 2016년 16위) :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최하
- 화학소재 등 주요 투자분야 일순, 서플라이 체인 투자처로서 매력 저하, 정치 리스크 등

경제·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비즈니스 룰' 구축 필요

- 향후 도래할 경제구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룰을 구축할 필요성
- 4대 메가 트렌드 :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EV, 셰어이코노미 시대 본격 도래
- 메가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 : 규제개혁, 새로운 비즈니스 룰 책정, 표준화·플랫폼·디펙트스탠더드 협력

한일 경제관계도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한일경제 관계도 기존 경제·산업 협력만으로는 정치관계가 개선되어도 무역·투자 회복은 기대난
- 한일 경제 관계도 지금까지와 다른 협력 방식을 모색할 필요

3.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란?

- 고령화 사회 도래는 한일 양국 모두 불가피한 현실
- 고령층의 적극적 경제활동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사회를 구축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에이지 이코노미')의 실현이 과제
- 4차 산업혁명, 셰어이코노미, EV시대는 에이지 이코노미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 메가 트렌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새로운 비즈니스 룰 구축, 표준화 등이 필요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일) 협력이 필요
- 자국의 비교우위를 지키면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픈&클로즈" 전략을 구사할 필요



4.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 기회?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 기회?

- “소비는 주로 현역세대가 하므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는 정체”한다는 것은 오해
- 고령층(60세이상)의 경제력·구매력은 젊은 층보다 오히려 왕성
- 일본 금융자산의 60% 이상인 약 1,000조 엔을 60세 이상이 보유 (한국도 50대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이 젊은 층보다 훨씬 많음)
-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균수명인 85세까지 20년간 매년 58조 엔을 소비할 경제력 보유
-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률 약 1% 정도를 추가 성장 가능

제도·규제 개혁 등을 통해 ‘고령화 이노베이션’을 실현할 필요

- 고령층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은 1. 의료, 간병 등에 대한 장래 불안, 2. 고령 층이 사고 싶은 물건이 없음
- 고령층의 소비·노동 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타파하는 제도·규제 개혁이 필수

	제조 서비스 이노베이션	서비스 개혁
병약한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의료 서비스 · 로봇을 활용한 간병시설 · 인공지능 활용 · 간병 장치 · 처방, 재생 의료 · 고령자용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혁 · 간병시설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개혁 · 혼합 간병 · 새로운 지역자원 사업 · 주택, 원격 의료 · 간병과 시민 후원
건강한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 세어링 · ICT활용(IoT, AI) · 자동운전차 · 시니어용 여행서비스 · 시니어전문 백화점·시니어 전문 피트니스 · 생애학습 서비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 세어링을 위한 제도개혁 · 여행업무에 관한 자격제도 개혁 · 시니어 할로 워크를 위한 제도개혁 · 실버 인재센터의 규제개혁 · 고령자고용의 제도개혁·취로 모자이크 · 유상 볼런티어

자료: 요시가와 히로시 편, 『에이지노믹스』로 일본은 소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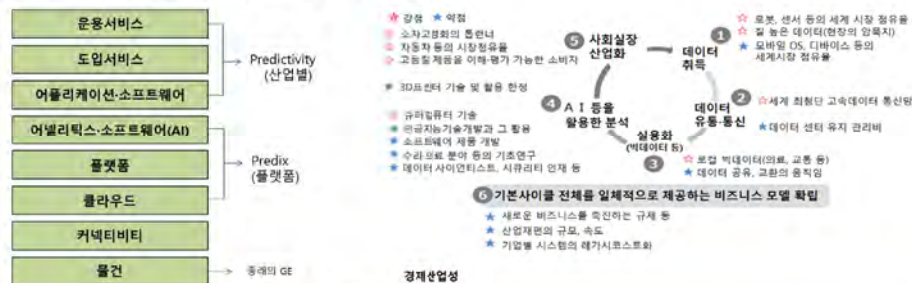
5.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한일 기업의 강점·약점

제조업 IoT 협력이 한일 양국 경제관계를 재구축하는 주요 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의미는 각종 기술들이 합쳐져서 여러 경제·사회·산업 분야의 자율적 효율화를 추구
- 다양한 기술과 산업 분야를 일국에서 독점하기는 불가능
- 독일은 국가주도의 전세계의 스마트 팩토리 구상(인더스트리 4.0), 미국은 IT기업을 중심으로 표준화·플랫폼 전략을 추진(IIC), 중국은 데이터를 무기로 독일과 협력(제조업2025), 한국과 일본의 전략은?
- 한일 양국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제조업의 IoT 협력이 가장 현실적인 협력방안
- 양국 모두 강점 분야이고 산업규모도 큰 제조업의 표준화·플랫폼 협력으로 시장확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할 필요
- 특히 데이터 공유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효율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필요
- 양국의 고유 문제(고령화, 저성장, 저생산성, 산업경쟁력 저하)의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한일 양국의 4차 산업혁명 강·약점 분야

- 한국은 일본보다도 센서·로봇 분야는 더 취약
- 한·일 양국의 약점을 보완하여 우군을 확보할 필요



6.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경쟁구조 변화

경쟁력의 원천이 인테그럴, 자립주의에서 모듈화, 표준화, 오픈&클로즈 전략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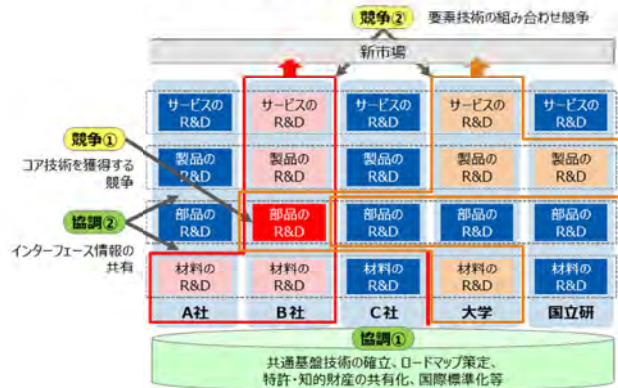
- 생산 프로세스의 모듈화
- 연결공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중소기업의 IoT화)
- 오픈 시스템에 의한 IoT 글로벌화
-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의 구분(오픈&클로즈 전략이 중요)

제조업의 기존 경쟁방식



노무라 종합연구소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제조업의 경쟁방식



KJCF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7

7. '연결 공장' 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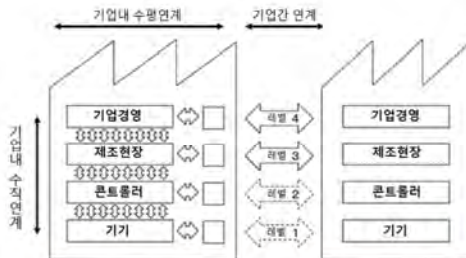
한·일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제

- 생산현장과 SCM에 집중(일본기업은 센서, 로봇에 집중)
- 현장주의에 집착
- 자립주의(데이터·노하우의 유출 우려)
- 다른 기업과의 연계 미흡
- IoT의 글로벌 전개 미흡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결공장 추진이 과제

- 기업간 연계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추구하는 바)
- 기능별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경쟁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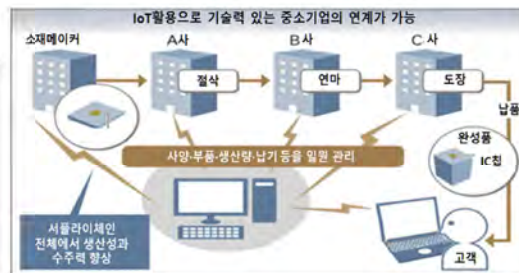
스마트 공장 및 연결공장의 개요



IVI 경제산업성

KJCF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중소기업 연결공장의 사례



8

8.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정보·노하우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등을 정비하고 글로벌 협력할 필요
- 기업의 노하우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로 협력할 필요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오픈&클로즈 전략의 개요



KJCF (주) 한국산업 기술협력재단

9

9. 한국과 일본의 IoT 추진 현황 비교

▶ 일본이 한국보다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추진이 약간 앞선 상황

·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 한국보다 체계적

한국과 일본의 IoT 추진 현황 비교

항목	한국	일본
4차 산업혁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진전도 4위 · 4차 산업혁명의 인식 미정착 · 생산 효율화의 관점 · 4차산업혁명이 모달산업이라는 인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전도 3위로 ICT보다 진전 · 인식이 어느 정도 정립 · 국가적 과제 해결 수단 · 4차산업혁명이 모달산업이라는 인식 부족 미흡
산업·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IoT에 중점 · 경쟁률 변화에 대한 인식 미흡 · 표준화 대응에 대한 대응 미흡 · IoT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IoT에 중점 · 경쟁률 변화에 미온적 대처 · 표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처는 미흡 · 인식하고 있으나 소극적 대응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일부로 추진 · 컨트롤 타워 분산 · 분산적·중복적인 정책 · 민간 단체 등과 연계 미흡 · 표준화, 자체권 등 변화에 소극적 대응 · 국제적 연계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과제로 추진 · 컨트롤 타워 선명 · 체계적·협력적인 정책 · 민간단체 활용이 체계적 · 표준화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 ·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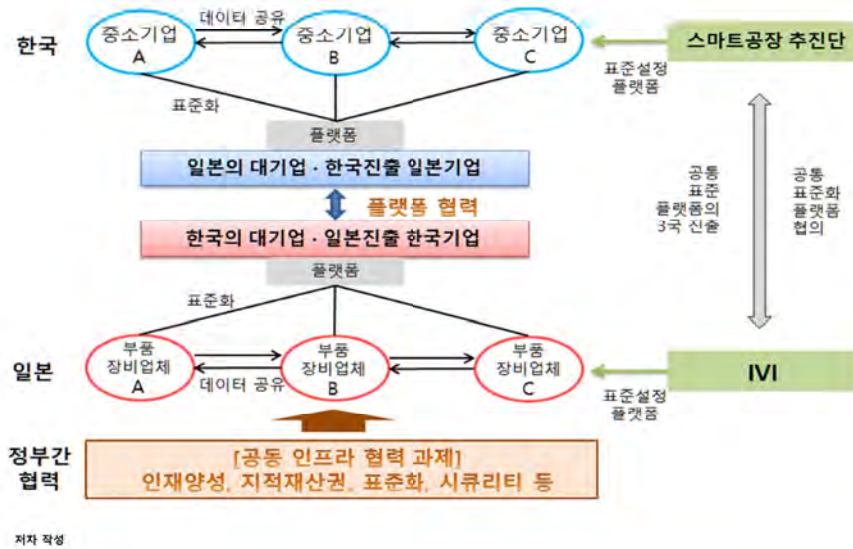
지자 작성

KJCF (주) 한국산업 기술협력재단

10

10. 제언 : 한 · 일 중소기업간 ‘연결공장’ 추진을 위한 협력 모델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연결공장 추진을 위한 플랫폼 협력 방안



11. 한 · 일 협력방안 예시

양국간 경제관계 복원을 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협력으로 돌파

규제개혁, 지원 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

협력 주체	협력 분야	협력 내용
정부간 협력	고령화	· 원격의료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혁 협력
		· 간병시설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 개혁
		· 제택·원격 의료
	정보 보호	· 시큐리티 확보를 위한 기술·제도 협력
	표준화	· 데이터 유동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설정 협력
	지적 재산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협력
	인재양성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협력, 인재 교류 등
	계몽활동	· 선진사례 양국 소개 등
단체·기업 간 협력 저자 작성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IoT 유도 사업 협력
	표준화	· 중소기업 표준화 단계간 협력(스마트공장추진협력단, IVD)
	기술교류	· 벤처·스타트업 기업간 교류
	중소기업	· 중소기업 IoT관련 양국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테스트 베드 소개 등)
	비즈니스 매칭	·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매칭 사업
	인재교류	· 전문인력 교류 등

12. 기업간 협력 분야 예시

⇒ 기업간 협력에는 표준화·플랫폼 협력이 관건

-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은 표준을 통일하여 독일 전체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중소기업 포함)
- 표준적인 오픈 통신규격
- 인터넷 접속 프로토콜의 표준화
- IoT에서는 플랫폼을 제압하는 자가 세계 시장을 독식
- 플랫폼을 누가 쥐느냐, 표준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중요
- 8개의 기술계층을 전부 자사개발은 불가능 : GE, 지멘스, 히타치(Lumada) 정도
- 기업간 협력, 합종연횡이 불가피
- 디팩드스탠더드 협조영역(오픈이노베이션)과 경장영역(코어기술의 블랙박스화)
- 일본 독자의 플랫폼이 없으면 외국 플랫폼 기업의 하청기업화
- 빅데이터의 교통 정체 해소
- 빅데이터의 고속처리와 인공지능 서비스 우열이 클라우드 성공의 성패

- 이상 -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한일양국기업의 연계 · 협업에 대해

한국미쓰비시상사(주)대표이사사장
후지요시 유우코우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Proprietary & confidential

○ 목차

1. 한일양국기업을 둘러싸는 사업환경
2. 신흥시장의 성장 포획
 - 2-1. 한일 연계 사례
 - 2-2. 한국 기업의 최근의 움직임
 - 2-3. 한일연계에 의한 부가가치상향
3. 제3국 한일경제연계사례 시찰미션의 전개
4. 국내사업의 개혁 · 합리화 안에서의 연계
5. 마지막으로

Proprietary & confidential 2



1. 한일양국기업을 둘러싸는 사업환경

한일 공통과제

한일양국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돌입하여,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양국경제는 이미 성숙하여 **저성장**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맞고 있다.

한일의 고령화율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2015년	2020년	2025년
	26%	28%	29%
	13%	16%	20%

* 한국은 2017년에 고령화율이 14%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돌입

한일의 출산율 추이

	2010년	2016년	2020년
	1.34	1.41	1.48
	1.23	1.25	1.39

* 2016년 출산율은 OECD35개국중, 일본 31위, 한국 35위

한일의 총인구 추이



한일의 경제성장률

	2015년	2016년 (E)	2017년 (P)	2018년 (P)
	1.1%	1.0%	1.3%	0.6%
	2.8%	2.8%	2.7%	2.8%

* E:잠정치, P:예상치

Proprietary & confidential

1. 한일양국기업을 둘러싸는 사업환경/민간기업의 움직임

국내시장에서의 유기적인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환경속에서, 아래와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

① **신흥시장의 성장 포획 (★)**

②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 제4차산업혁명 · 기술 이노베이션의 활용**

③ **국내사업의 개혁 · 합리화 (★)**

한일기업의 연계 및 협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Proprietary & confidential

2-1. 신흥시장의 성장 포획/한일 연계 사례

나라	분야	기업명	안전개요
인도네시아	LNG공동개발	미쓰비시상사(일본), 한국가스공사(KOGAS), PERTAMINA(인도네시아), MEDCO(인도네시아)	4사에 의한 LNG 공동생산 프로젝트. 미쓰비시상사와 KOGAS는 가스개발부터 참여하여, Operator로서 LNG생산사업에 중사. 2015년에 상업운전을 개시. 현재, 순조롭게 가동중.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소지프(일본), 대림산업(한국)	베트남전력공사로부터 "오른 제1화력발전소2호기" 건설프로젝트를 수주.
요르단	전력판매	미쓰비시상사(일본), 포스코건설(한국), 월지라(이란)	3사의 컨소시엄이 요르단 국영전력회사와 25년간 장기매매계약을 체결.
칠레	전력판매	미쓰비시상사(일본), 한국전력공사(한국), AES-Gener (칠레)	코쿠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3사가 컨소시엄을 형성. 2016년도 제1분기부터 전력판매를 개시.
방글라데시	복합화력발전소	마루베니(일본), 현대건설(한국)	2사는 방글라데시 전원개발공사로부터 비비야나 복합화력발전 설비건설일임을 공동 수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력발전소	미쓰비시중공업(일본), 현대중공업(한국)	사우디전력회사 SEC가 건설하는 대규모 석유화력발전소를 위한 초임계압중기 터빈발전기와 초임계압 보일러컴포넌트를 수주.
몽골	공항건설	미쓰비시상사(일본), 지요다화공건설(일본), 삼성물산(한국)	미쓰비시상사와 지요다화공건설에 의한 JV가 신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의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터미널 빌딩과 탑승교 건설은 삼성물산이 담당.
말레이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스미토모상사(일본), 대림산업(한국)	2사의 컨소시엄이 말레이시아 정부계열 전력회사가 발주한 초임계압 석탄발전소의 설계·조달·건설업무를 정부하는 EPC계약을 수주.
말레이시아	해상LNG플랜트	JGC(일본), 삼성중공업(한국)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공사가 사바주 암바다 가스전 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해상LNG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소	미쓰비시물산(일본), 대우건설(한국)	미쓰비시물산이 프로젝트 투자, 자금 조성을 지원하고, 대우건설은 부대설비 및 EPC를 담당.

- 한일양국은 에너지자원분야 및 인프라분야에서 프로젝트 조성력, 자금, EPC경쟁력 등, 각각이 갖는 강점을 살려 연계하고 있다.
-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지역을 넓혀가며, 활성화 되어 갈 전망.

Proprietary & confidential

5

2-2 . 신흥시장의 성장 포획 /한국기업의 최근의 움직임

중국의존도를 경감하는 움직임 속에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래의
진출분야

섬유·전자와 같은, 경쟁력있는
현지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출형사업을 주로 한다.

게다가

최근의
진출분야

리테일분야, 소비재제조 등,
신흥국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사업을 통해 포획하는 경향.

한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사례

나라	분야	기업명	안전개요
베트남	리테일	신세계	호치민시 고방지역에 마트 베트남 1호점을 운영중. 2020년까지 베트남에서 대형소매점뿐만아니라, 슈퍼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에 투자할 예정.
베트남	도시개발	롯데	2014년, 65층의 "롯데센터하노이"를 완공. 2020년까지 "롯데몰하노이"를 오픈 예정. 2021년까지 호치민시의 투티엠지구 "에코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예정.
베트남, 인도네시아	리테일	GS리테일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GS슈퍼마켓을 오픈. 올해안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GS25 1호점을 오픈 예정.
이란	리테일	CU	올해안으로 이란 테헤란에 1호점을 오픈 예정.
베트남	소비재	SPC	파라바게트는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하노이에 진출.
말레이시아, 인도 등	리테일, 소비재	CJ	동남아시아에서, 홈쇼핑, 베이커리, 미디어 콘텐츠까지 사업영역을 확대.

Proprietary & confidential

6

2-3. 신흥시장의 성장 포획 /한일연계에 의한 부가가치상향

- 한일양국간에는 최근 소비문화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 교류를 통하여 풍부하고 질이 높은 소비자경제를 충실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경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신흥시장에 진출해있는 소비재관련사업에, 이러한 한일 교류를 통해 양성되어 있는 질높은 서비스 (소프트)를 가함으로써, 새로운 한일양국의 연계, 사업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리테일, 소비관련사업, 도시개발 등, 신흥국의 생활향상에 공헌하며, 한층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한일연계의 형태가 기대된다.

Proprietary & confidential

3. 제3국 한일경제연계사례 시찰미션의 전개

제3국 한일경제연계사례 시찰미션에 대해

-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는 미션을 파견.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에 가서 현지 시찰 미션을 수행하였다.

몽골 미션 (2017년7월) 개요

한일연계프로젝트의 시찰 및 몽골에서의 한일 비즈니스 연계 기회를 모색

- 1) 신공항건설현장 시찰
- 2) 한일경제연계 심포지움(재)몽골양국 정부 관계자)
- 3) 제4화력발전소 개수사업 시찰
- 4) MONNARAN농원·태양광발전소사업 시찰

- 한일의 사업 파트너가 긴밀히 연계하여, 일체감을 갖고 사업을 전개.
- 한일 양국 기업간, 현장에서의 과제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였다.
- 양국기업간에는, 상호 신뢰 관계가 있다.

Proprietary & confidential

4. 국내사업의 개혁 · 합리화 안에서의 연계

한일연계의 새로운 움직임

-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성장을 위해 확대하는 분야도 있는 반면, 축소하여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사업도 있다.
- 사업내용이 유사하며, 종래에는 경합했던 한일 양국 기업 사이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합리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연계의 움직임이 있다.
- 각각 강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는 특정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약점사업에 대해서는 제품 융통이나 기술 제휴에 의한 연계, 더 나아가서는 생산 거점의 폐쇄나 합병도 시야에 넣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연계의 첫걸음이 되는 “제품융통”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추가 유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다.

Proprietary & Confidential

4. 국내사업의 개혁 · 합리화 안에서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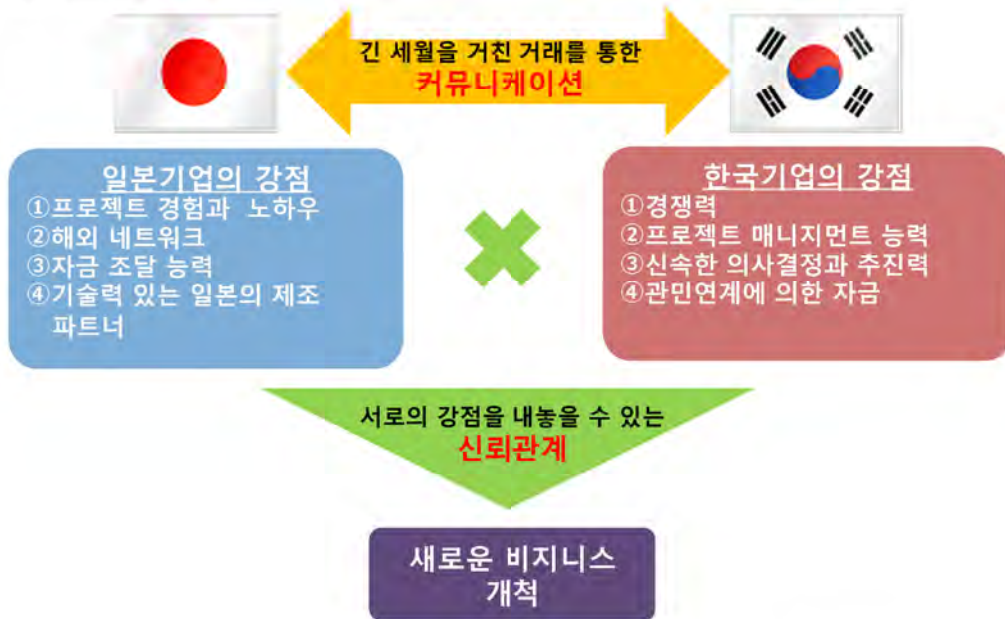
- 양국기업은 원료에서 제품까지의 밸류체인 강화나 제품을 골고루 갖추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 하지만, 사업환경이 변화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합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래는 커뮤니케이션이 적었던 한일기업이 각각의 특기 분야의 제품융통 및 기술제휴의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또한, 필수가 되는 중간원료를 타사에 의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Proprietary & Confidential

30

5. 마지막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

4 차 산업 혁명과 전문직의 변화

KCERN 이사장
이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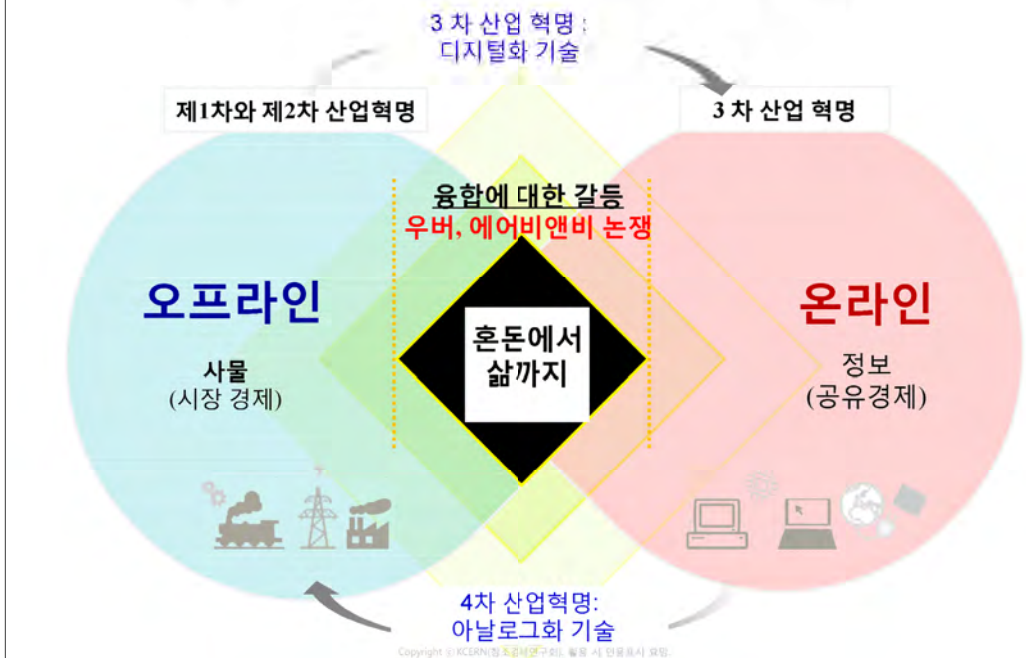
제 4차 산업 혁명, 장님 & 코끼리 우화의 현대판

빅 데이터 / 산업용 인터넷 / 인공 지능 / 자율 주행차 / 스마트 시티 / 데이터 과학 / 기계 학습 / 웨어러블
/ 클라우드 컴퓨팅 / 가상 현실



제 4 차 산업 혁명은 이들 모두와 그 이상이다!
50 조 달러의 가치

제 4 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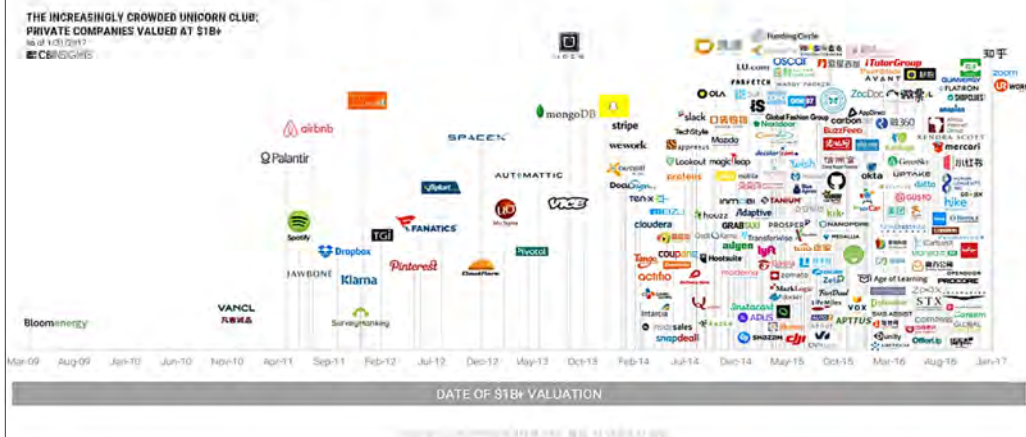


제 4 차 산업 혁명과 글로벌 유니콘의 폭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시장 가치 10억에 도달하는데 20년 걸림.

유니콘의 경우? 4.4년

여기 풀어야 할 비밀코드라도 있나요?



유니콘의 다양한 PSS 전략 (사물 인터넷 + 빅 데이터 + 인공지능)



**BM 플랫폼
(온라인)**

스마트 연결 장치를
이용한 가치 창출

전기 제품에 관한 IoT
(사물인터넷)가 다양한
형태의 부가 가치를 추가

이동성, AV 기기, IoT의
융합을 통해 생성된 가치

**HW 차별화
(오프라인)**

IoT를 사용하는 많은
HW 디바이스 개발

전문 전기 제품 개발

주요 제품

주요 제품



비즈니스 모델

하드웨어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HW + 서비스 플랫폼

5

O2O 컨버전스(융합)→ 글로벌 유니콘의 비밀?

글로벌 유니콘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가상과 실제의 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예측 및 주문 생산을 통한 최적화

상업

놀이

먹거리

학습

일

여행



오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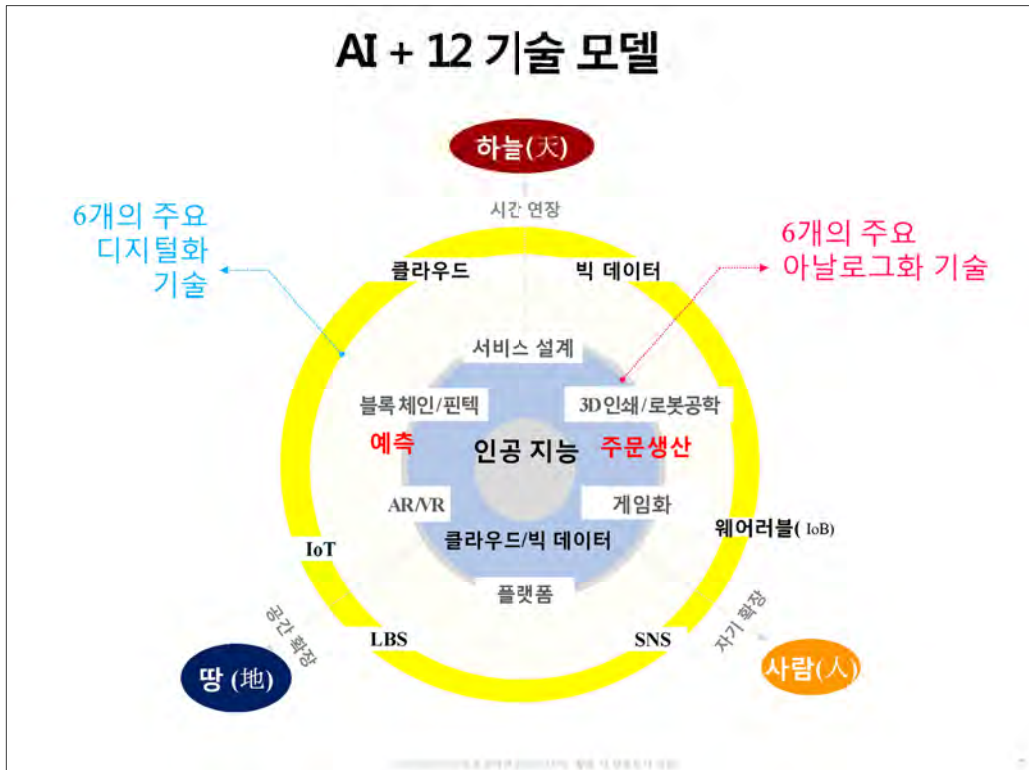


온라인

예측

주문생산

AI + 12 기술 모델



AI + 12 기술 모델 요약



인간과 인공 지능 간의 협력 시대가 열린다



서비스로서의 AI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Copyright © 2018 한국경제신문(주) (K1818) | 발행처: 인공물서: 0000

데이터를 '요리'하여 가치 창출



제 4 차 산업 혁명 & 전문직의 변화

기술혁신은 일자리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가?

육체 노동 대체



러다이트 운동, 1811:
기술 혁신에 대한 반응

기술 혁신과 실업 간의 관계

<실질실업률 - 100년간 큰 변화 없음 - 공황/사건 영향 큼>



정신 노동 대체



업무의 본질은 진화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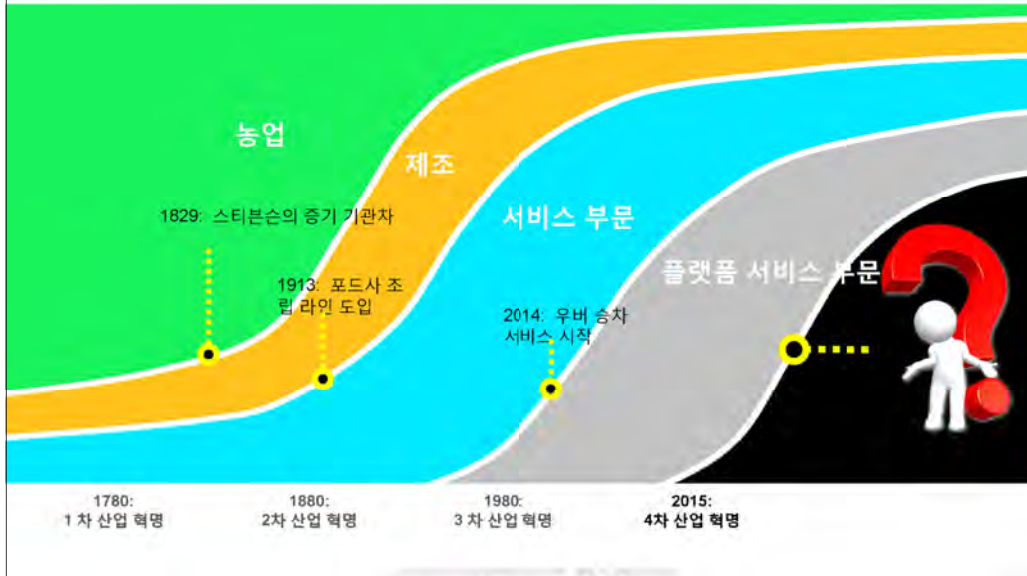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 수를 감소시킨 적은 없다!

일자리 창출 및 파괴

▶ 혁신의 본질 : 창조적 파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노동은 진화하고, 일자리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1960 년에서 2010 년까지: 생산성 향상 (108 %); 임금 인상 (80 %), 주당 근무 시간 단축 (80에서 40)



기술 혁신 및 인간 욕구가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과 잠재적 필요가 직업 창출로 이어진다
'공급'을 증가시킨 기술이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 혁명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산업 혁명의 새로운 해석 기술과 요구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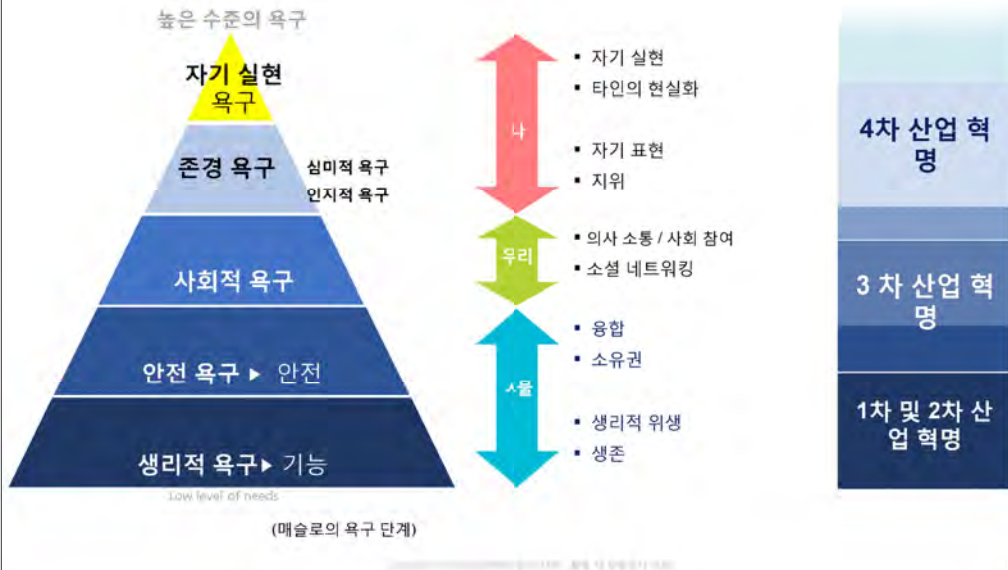
인간의 새로운
요구는 무엇인
가?

이전의 모든 산업 혁명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새로운 4차 혁명 일자리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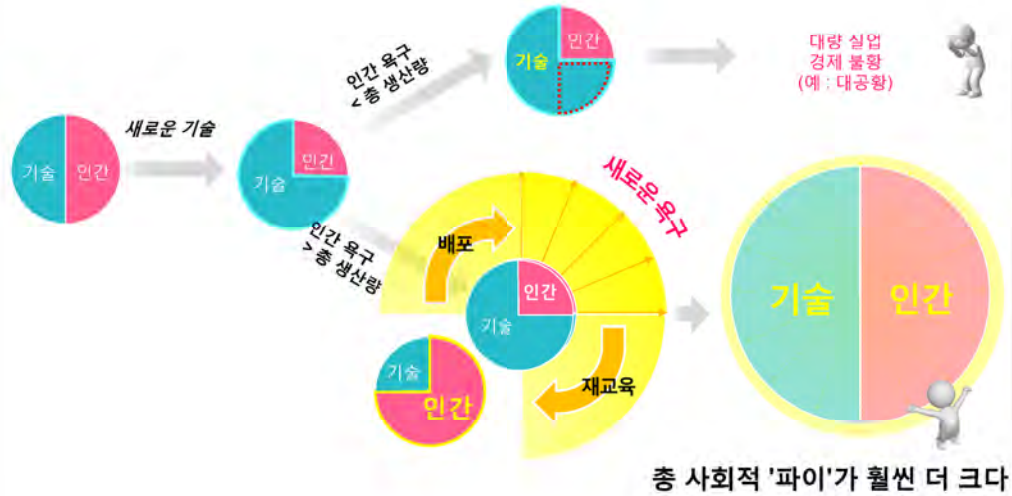


총 작업량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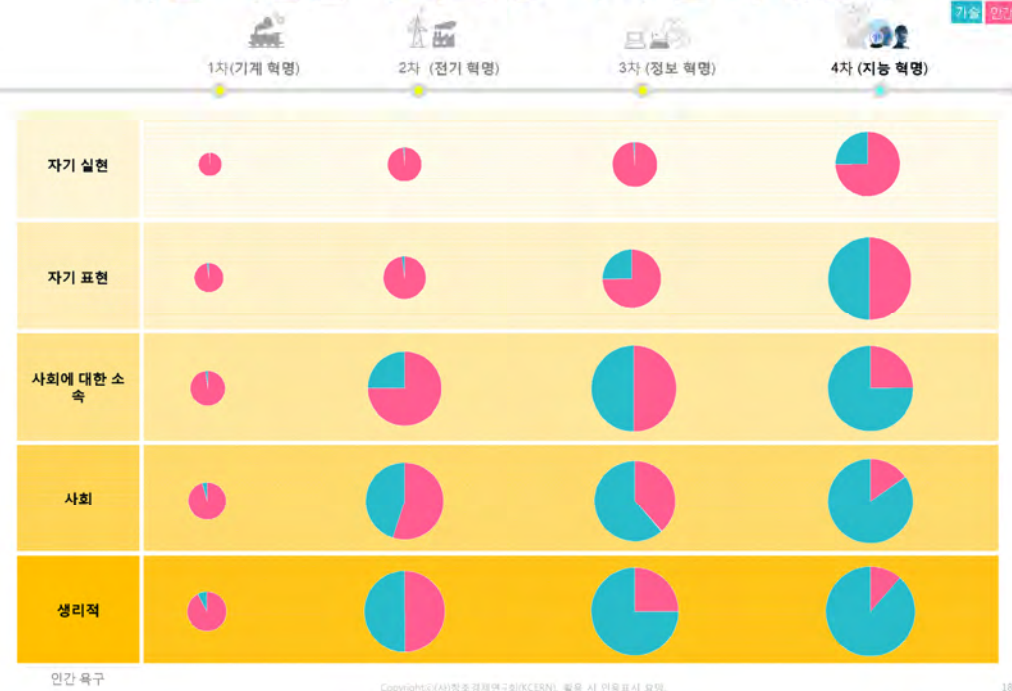
최소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술 + 인간"사이의 선순환



기술 혁신은 사회의 총 '파이'를 확대한다



교육 및 배포: 일자리 진화를 위한 인프라

최고 생산성

근무 시간 단축

여가 시간 연장

▶ 새로운 욕구 주도?

창의적 인적 자원

평생 학습 시스템
공급 능력 확대

생산성 증가
(총 노동 / 일 감소의 원인)

소비 증가
(총 노동 / 일 증가의 원인)

AI, 로봇 공학, 데이터 분석 → 생산성 증가

자기 표현 욕구 → 일자리의 원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의 본질
근무 시간 및 고된 노동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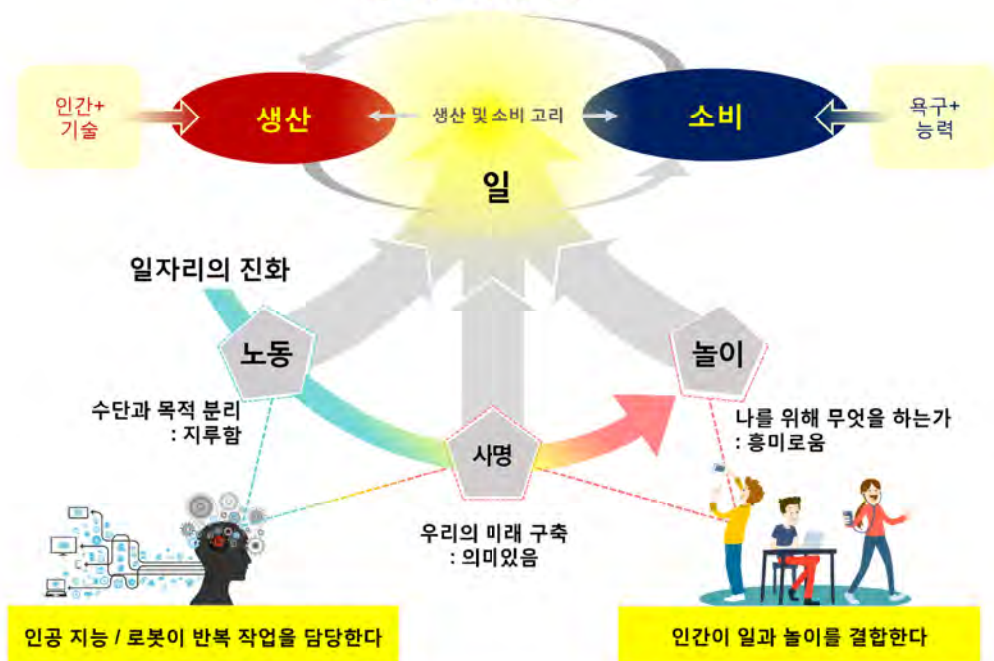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
표준화된 서비스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로

분배 가버넌스
유효 수요 확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12월 14일 발표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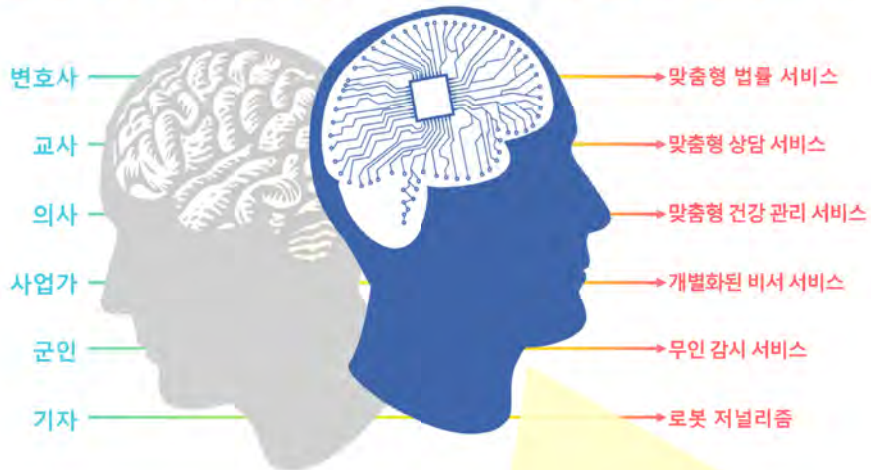
일의 재정의



일자리가 아닌 노동이 사라진다



인간이 자기 실현을 달성하도록 돕는 인공지능



로봇과 AI는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도 수행한다

최전선에서 시작된 변화 물결의 예시

출처: 제 4 차 산업 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2016)

건강 관리

대규모 커뮤니티



정교한 컴퓨팅



로봇 시스템



3D 인쇄 기술



- 교육
- 종교
- 법률 분야
- 저널리즘
- 경영 컨설팅
- 세금 / 회계 감사
- 건축

최전선에서 시작된 변화 물결의 예시

출처: 제 4 차 산업 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2016)

건강 관리

교육

하이브리드 코스 학교



▲ 하이브리드 코스는 최우선적으로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적응형 학습 시스템 회사



▲ 1 대 1 교육 (교수법)이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능 교육 시스템이 사용된다.

다양한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



▲ 커뮤니티 지원

▲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도록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공유한다

▲ 수업 관리 도구 및 가상 학습 환경 제공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 가장 잘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 전통적인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 공유

▲ 인정받는 전문 종사자에 의한 설치 및 운영 professional practitioners

수세기 동안 지속된 전통적인 교육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교사는 융통성 없는 강의 계획에 따라 물리적 공간-즉, 교실-을 차지하기 위해 모인 학생 그룹에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길이의 실시간 강의를 동일한 속도로 방송한다

- 종교
- 법률 분야
- 저널리즘
- 경영 컨설팅
- 세금 / 회계 감사
- 건축

최전선에서 시작된 변화 물결의 예시

출처: 제 4 차 산업 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2016)

건강 관리

교육

종교

법률 분야

저널리즘

경영 컨설팅

세금 / 회계 감사

건축

두 갈등 당사자 간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정은 위풍 당당한 정부 건물에 있으며 소송 절차는 엄격하고 전통적인 규칙을 따른다. 그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매우 전문적이고 고풍스럽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은 법률 전문가이며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잃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법률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전산 시스템

Westlaw[®] UK

▲ 법률 연구용 도구



LexisNexis[®]

▲ 법률 연구용 도구



ContractExpress

▲ 계약 / 서류를 종합하는 시스템



exari[®]

▲ 계약 / 서류를 종합하는 시스템



docracy

▲ 가능한 계약 사례 검색



shake

▲ 모바일 앱으로 계약 생성

변호사의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일련의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때때로 이들 시스템은 변형된다.

최전선에서 시작된 변화 물결의 예시

출처: 제 4 차 산업 혁명과 전문직의 미래 (2016)

건강 관리

교육

종교

법률 분야

저널리즘

경영 컨설팅

세금 / 회계 감사

건축

온라인 전용 저널리즘



▲ 비영리 온라인 뉴스 플랫폼



▲ 비영리 온라인 조사 저널리즘



▲ '유출된' 사적, 비밀 및 비공개 정보



"단지 손가락 한번 튕겨서 헤드 라인과 내용에 한 사람의 관심만 반영할 정도로 개인화된 미래의 신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5)

일상적인 개별화된 맞춤 뉴스



▲ 개별화된 맞춤형 잡지

▲ 뉴스 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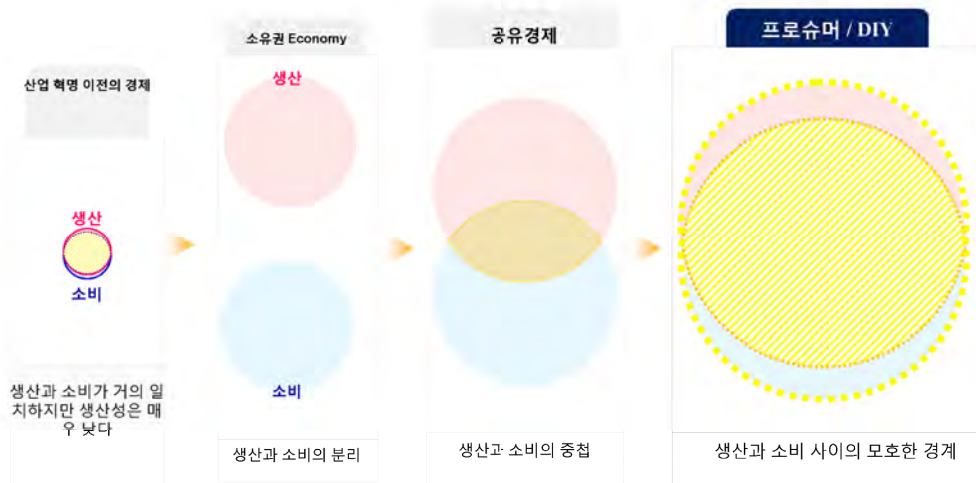
저널리즘은 어떻게 실현되고 변형되는가

언론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 기사를 검색하거나 스토리 풀을 활용하고 편집과 노드레이킹을 위해 각각 영문법검사기와 에버노트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 알고리즘이 신문 기사를 작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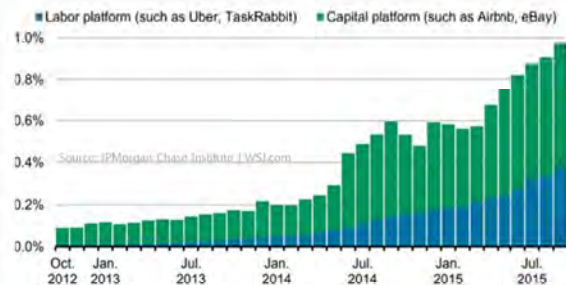
공유경제: 프로슈머의 진화



Copyright © (A) 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27

긱 경제와 낯워킹



긱 성장

주어진 달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미국 성인의 몫으로, 종종 긱 또는 공유 경제라고 불림

긱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미국내 일자리의 43%가 프리랜서가 될 것이다



긱/낯워킹 경제
일이 노동이 아닌, 즉 즐거운 경제...
(일이 흥미롭고 의미를 담고 있다)

Copyright © KCERN & 창조경제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28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제 2세션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7년 9월 27일

다이토문화대학
다카야스유키치(高安雄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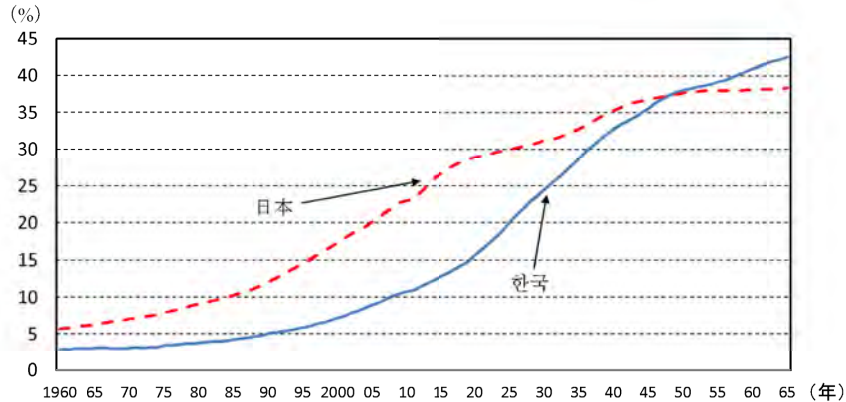
1

I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1. 한국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그림 1) 한일의 고령화율



(출처) 統計庁「将来人口推計 2010-2065」、総務省統計局「我が国の推計人口(大正9年~平成12年)」、同「長期時系列データ(平成12年~22年)」、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9年推計)」により作成。

3

2.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

<인구 보너스 [bonus] 시기>

생산연령 인구비율 (인구대비 15~64세 인구비율)이 상승하는 시기

⇒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사회보장부담이 낮아지는 시기

<인구 오퍼스 [Onus] [부담] 시기>

생산연령 인구비율이 하락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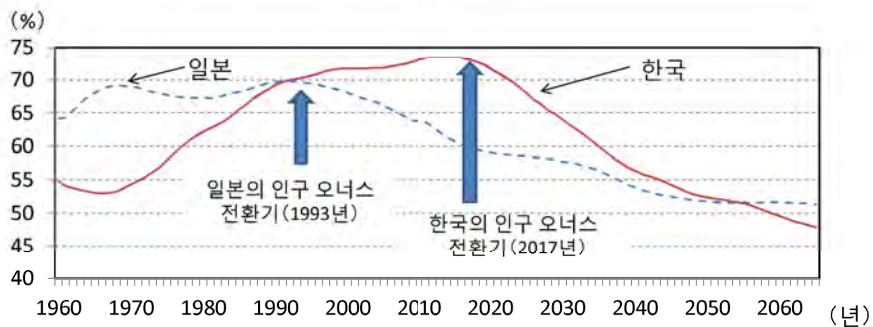
⇒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보장부담이 높아지는 시기

4

3. 한국은 2013년에 인구 오너스 시기로 전환

•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늦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구 오너스 시기 도래

(그림2) 생산연력 인구비율과 인구 오너스의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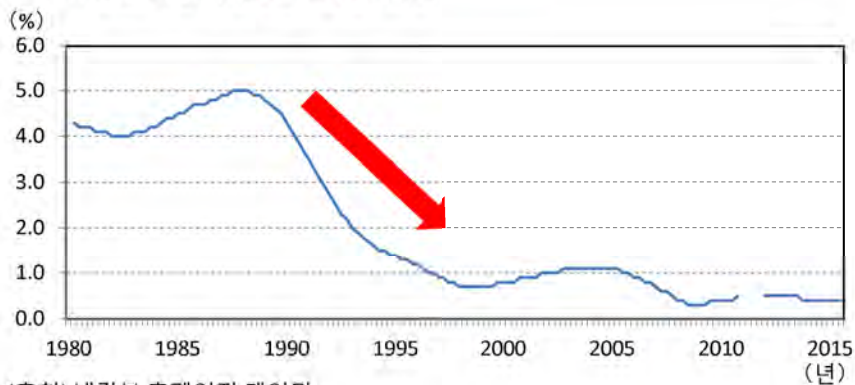
(출처) 그림1과 동일

5

4. 일본은 인구 오너스 시기에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저하

• 일본에서는 버블붕괴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지만 인구 오너스 시기 (1993 ~)에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짐

(그림3) 일본의 잠재성장률 (실질 : 연율)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데이터

6

5. 잠재성장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잠재성장률

⇒ 경제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완전히 활용했을 경우에 가능한 경제성장률

생산에 필요한 요소 ⇒ 기술, 노동, 자본(=설비)

잠재성장률(성장회계)

$$= \text{기술성장률} + \alpha(\text{노동성장률}) + (1-\alpha)(\text{자본축적성장률})$$

α = 노동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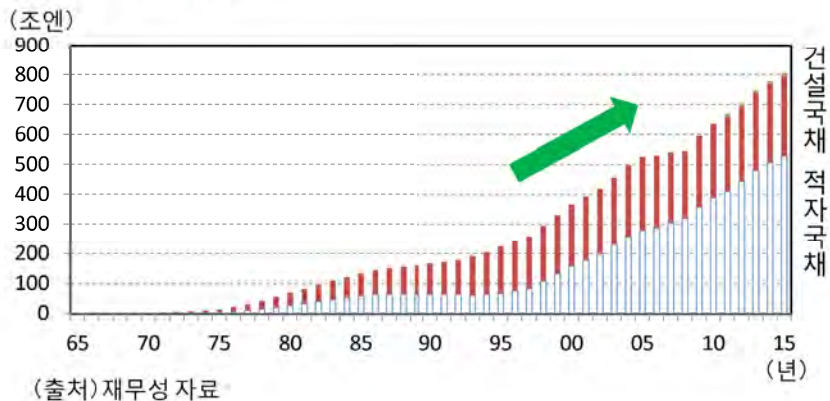
고령화로 인해 하락함

7

6. 일본은 인구 오너스 시기에 재정 악화

•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에 국채잔고가 급증. 사회 보장비의 확대가 가장 큰 요인

(그림4) 일본의 국채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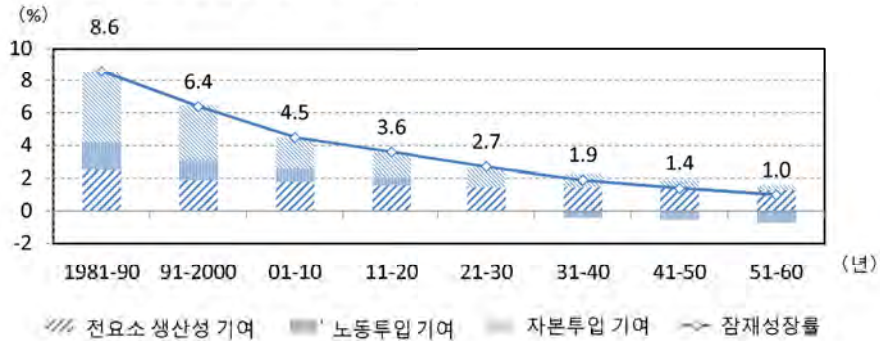


8

7. 향후 한국도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 급락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노동투입 및 자본투입의 기여가 줄어들어 향후 크게 하락할 전망

(그림5)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KDI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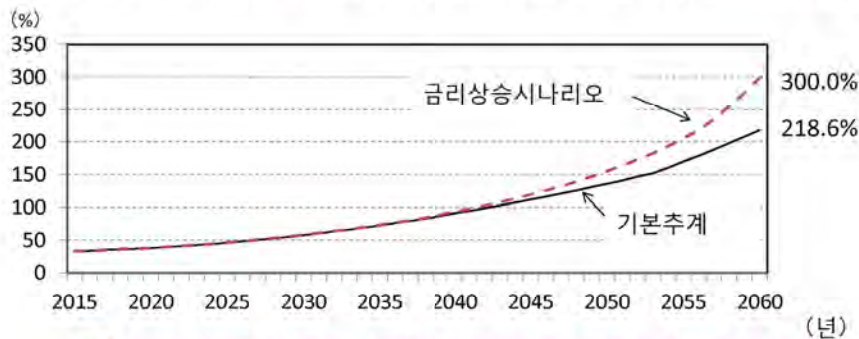


(출처) 신석하 외 (2012) 50 페이지 수치

8.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재정파탄이 날 가능성

- 현재 제도에 변경이 없으면 한국은 재정파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6) 한국의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전망)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추계에서는 151.8%로 소극적인 추계

(출처) 2012년 기본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 (2012) 133 페이지 표 수치 참조
금리상승 시나리오는 135 페이지의 표 수치 참조

9. 신정권의 정책을 추진하면 재정이 위험

1. 기초연금액 인상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40%→50%)
3.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치료범위의 확대 및 자기 부담률의 대폭 인하



법인 증세와 소득세 증세(부유층)은 재원으로서 부족
→법인증세는 국제경쟁력을 하락시켜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

11

II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법

12

10. 생산성 향상

• 고령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

⇒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도 고령화율은 40% 정도로 높아짐

⇒ 유럽제국의 고령화율은 30%대 전반에 그칠 전망.

일본과 한국만 40% 가까운 고령화



고령화 상황에서도 기술 진척률(=생산성 향상률)을 높일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짐

13

11.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범용품 → 고부가가치 제품)

⇒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부품산업 (고부가가치) 등의 저변을 넓힌다.

<구체적 시책>

• R & D 투자 촉진

• 노동구조 조정에 의한 고용의 유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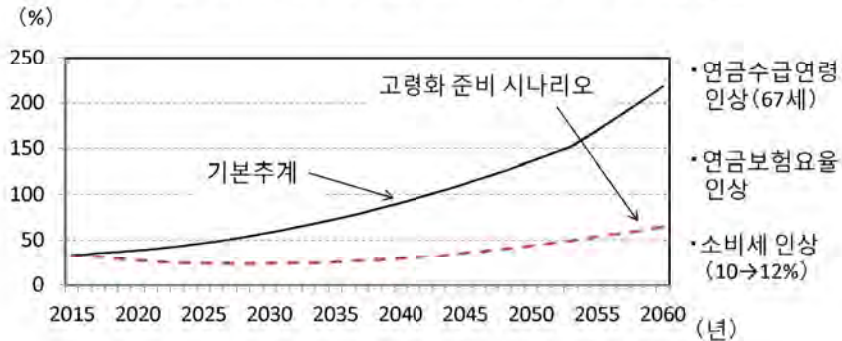
• 교육개혁

14

12. 약간의 부담 상승과 보장 인하

·한국은 저보장 국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도 일본만큼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 약간의 부담 상승과 보장 인하로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7)고령화 준비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전망



(출처)고령화 준비 시나리오는 국회예산정책처(2012)139 페이지 표 수치 참조

III 정리

13. 초고령화 문제는 한일 만의 과제

• 고령화율이 40%가 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뿐이다.

→ 인구 오너스의 문제 (저성장 + 재정악화)는 일본이 앞서 경험

잠재성장률은 버블 붕괴가 겹쳐 단번에 하락 (경착륙)

@ 한국은 버블의 징후 없음. 경제구조도 나쁘지 않다 (좋은 점)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나쁜 점)



한국 일본 모두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고령화 수준을 경험할 국가가 될 것이다.

17

14.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한일 협력

• 고령화 문제에 직결되는 의료, 간호분야의 연계

→ 일본,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 · 간호 산업은 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음

→ 고령화가 앞선 일본, 일본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이 의료 · 간호 분야에서 산학이 연계하여 양국의 관련산업을 육성

혁신 분야의 제 4 차 산업혁명의 제후



• 고령자의 의료 및 간호품질 향상으로 행복지수 향상

• 성장산업이 되어 성장률을 뒷받침함으로써 행복지수 향상

18

15. 양국이 지향하는 목표

- 고령화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논쟁 → 복지를 줄이거나 부담을 늘이거나
 - 일본은 “중간복지·저부담”.
복지수준과 부담의 격차가 재무구조를 악화시킴
 - 한국은 “낮은 복지·저부담”
재정구조는 비교적 건전하지만 노인빈곤 문제 등 문제점 다발
- 양국 모두 어느 정도의 부담 인상(소비 증세 등)은 불가피
-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향상시켜서 부담률 인상 수준을 줄일 수 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일 협력이 필요)

第49回 韓日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17年 10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徐 錫 崇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06059 서울特別市 江南區 宣陵路131길 18-4

(韓日財團B/D 4F)

TEL : 02-3014-9888 FAX : 02-3014-9899

www.kje.or.kr